



SEOUL WOMEN'S  
UNIVERSITY

바르다

*think  
right*

SWU #1 바르다 *think right*



SEOUL WOMEN'S UNIVERSITY



# 바르다 think right

- 02 바른 교육의 꿈, 서울여자대학교 Story 나와
- 12 우리를 키우는 바른 교육, 바롬®
  - 고향경 박사 그리고 바롬
  - 바롬®인성교육
  - 잘 가르치는 대학, ACE
- 20 바른 교육의 새로운 무대, 50주년기념관바른
- 26 교육의 중심, 학문 분야
- 36 바른 교육의 장, 캠퍼스 인프라 & 라이프 바른
- 40 교육의 변천사, History

서울여자대학교, 바르다 그래서 다르다

## #1. 바르다

*think right*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야 한다는 생각,  
사람다운 품성,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생각, 참 가르  
침과 참 배움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이웃, 사회, 세계와 지식을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  
이생각을 한결같이 이어가고자 하는 진심이 있기에  
서울여자대학교는 한 사람을 바른 인재로 성장시킨다.

발행일 2013년 10월 18일  
발행인 전해정  
발행처 서울여자대학교 입학홍보처 홍보팀139-774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랑로 621 tel  
02-970-5114 / fax 02-978-7931  
기획 및 제작 (주)헤이프레스토





발끝의 빛을 따라 내딛는 걸음,  
언제나 바른 것을 추구하며 내일을 향한다.



사람은 저마다 하나의 우주,  
새롭게 마주하는 또 다른 세계 안에서 비로소, 나를 넘어선다.



젊음 그 끝이 향해야 할 것은 세상,  
배우고 경험하며 살아 숨 쉬는 지식을 열망한다.



학문의 참된 완성은 참여와 실천,  
나눔을 통해 우리는 낮은 곳으로부터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

꿈과 배움이 마주하는 순간, 지식과  
열정이 마주하는 경험, 생각과 실천  
이 마주하는 자리,

그 안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다.





이런 점에서 초창기의 모습 중 빼놓을 수 없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농촌생활실습이다. 대학교육을 받는 사람이라면 국민의 참모습을 직접 체험하여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고향경 박사는 4년 중 1년은 필수적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해 농촌활동 실습을 이수하도록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였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여성 지도자를 키우다

서울여자대학교의 차별성은 여성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에서도 드러난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이 없던 시절, 서울여자대학교는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미래의 여성 지도자 발굴과 교육에 힘썼다.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민주사회시민 양성에 초점을 맞춘 '걸스카우트 지도자 과정'과 기독교 봉사 정신의 실천을 강조한 'Y-Teen 클럽 지도자 훈련', 그리고 농촌 지도자 훈련에 역점을 둔 '4H 클럽 지도자 훈련'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에도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을 키우는데 집중했다.

고향경 박사가 강조하고 추진했던 지도자 훈련은 현재 바롬인성교육의 교과내용으로 포함되어 진행되고 있다. 1982년부터 1999년까지는 사회지도자 훈련 I, II, III란 명칭으로 현장조사와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찰해 시대상을 반영하는 지도자 교육으로 계승 발전되었다. 그리고 2000년도에 고향경 박사의 호를 따서 '바롬교육'으로 한차례 명칭을 변경하고 바롬교육 I, II, III로 이어져 오다가, 2011년 바롬인성교육 I, II, III로 다시 한 번 바뀌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제 시대는 바뀌었다. 그러나 바롬인성교육은 여전히 서울여자대학교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시대의 선구자, 고향경 박사의 교육철학의 중심이 되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라'는 참뜻은 50여 년을 한결같이 서울여자대학교 정신의 뿌리가 되어 오늘의 '바롬인성교육'을 통해 계속되고 있다.

## 바롬® 인성교육

서울여자대학교는 개교 이래 50여 년간 생활공동체 기반의 '바롬인성교육'을 지속해오고 있다. 국내 최초의 레지덴셜 컬리지(Residential College)를 운영하며 21세기에 어울리는 전인적 여성 리더 양성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시대에 더욱 빛나는 바롬사상 '우리를 중시하는 실천적 지도자를 키우다'

바롬사상은 한마디로 '전인교육'과 이를 실천하는 '생활교육'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이념은 서울여자대학교의 생활교육과 바롬인성교육으로 구현되었다. 바롬인성교육은 확고한 가치관에 기초해 민중에게 봉사하는 실천지향적 지도자, 경쟁보다 협동을, 개인보다 공동체를 지향하는 전인적 인간상을 강조한다.

바롬인성교육은 지난 반세기 동안 끊임없이 변화를 겪어왔다. 바롬인성교육의 기초이자 중심 부분인 생활관 교육기간이 처음에는 4년이었으나 시대적 상황과 학생 수 증가라는 현실에 맞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변화를 꾀했다. 교육내용에도 변화가 있었다. 1985년까지 필수로 강조되던 '농촌생활실습' 대신 민주 시민 의식 함양과 공동체 생활의 중요성을 새롭게 강조해 온 바롬인성교육은 1997년 환경문제를 교육에 반영하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왔다.

1998년 바롬교육센터 완공 이후에는 총 5주 과정의 보다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바롬인성교육의 시대가 열렸다. 이후 2010년까지의 다양한 시도를 바탕으로 2011년에는 글로벌 소양교육을 강화한 바롬인성교육 I, II, III 프로그램으로 체제를 변경했다.

오늘날 지역·국가간 경계는 점차 허물어지고 상이한 영역 간의 통합과 상호교류가 활발해졌다. 또한 현대사회가 직면한 위기문제들은 많은 부분 전체 성원의 공동노력을 통해 서만 해결 가능한 구조로 바뀌었다. 이러한 때 개인 각자의



고유성을 확보하면서도 다른 사람과의 차이점을 상호존중하며 '새로운 공동체적 자아', 진정한 '우리' 의식을 확립하고자 하는 바롬인성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바롬인성교육  
주요 프로그램

바롬인성교육 I  
나를 깨운다

자아정체성과 비전 확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여대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여준다.  
또, 교양인으로서의 기본예절과 학습운리를 배우고 글로벌시민에게 필요한 외국어와 문화 소양을 함양한다.



바롬인성교육 II  
사회를 깨운다

나와 다른 사람간의 대화, 협상, 문제해결 등 사회 속에서 소통하고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으로, 공감적인 의사소통능력을 키우고 다문화 민감성을 높여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한 차원 높인다.



바롬인성교육 III  
세계를 깨운다

바롬인성교육 I, II에서 배운 능력과 소양을 기본으로 세계적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바라보며, 실천과 참여를 통해 창의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시대를 앞서가는 모듈형 바롬인성교육더  
불어 발전하는 공동체를 꿈꾸다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며 끊임없이 변모해온 바롬인성교육! 21세기에 들어서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변화함에 따라 바롬인성교육도 보다 미래지향적인 생활교육으로 변화하는 전환기를 맞았다. 지구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에서는 현재 바롬인성교육 프로그램을 I, II, III 세 과정의 모듈로 개발하여 필수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바롬인성교육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을 체득하게 하고, 자아를 발견할 소중한 기회를 준다. 바롬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진취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의욕과 적극적인 생활태도를 가지게 된다. 서울여대인들이 졸업 후 사회생활과 공동체 생활에 뛰어나게 적응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바로 바롬인성교육의 효과로 여겨지고 있다.

인성을 바탕으로 실천사상을 강조하는 고향경 박사의 바롬정신. 그는 떠났지만 그의 교육철학은 서울여대인 모두에게 스며들어 여전히 생생한 생명력을 발하고 있다. 서울여자대학교의 차별화된 교육을 대표하는 바롬인성교육은 서울여자대학교의 미래에 더욱 빛나는 가치를 발할 것이다.



바롬인성교육의  
어제와 오늘

1961

생활교육의  
출발

국내 최초의  
기숙사형 전인교육

설립당시부터 전교생이 생활관에 입사하는 국내 최초의 기숙형 여자대학을 표방하고, 개교와 동시에 '생활교육'을 시작했다. '인간이 바로 된 후에야 지식도 기술도 인간 행복에 바로 쓰인다'는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입학에서 졸업까지 공동체 생활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 1961년 전원 생활관 교육 실시, 생활관 3년 실습주택 1년 생활 의무화
- 1980년 생활교육 학점화
- 1982년 생활관 교육 1학기, 3주 실습주택 생활로 변경

1982

인성교육 체계의  
개편

참여하는 청년을 만드는  
사회지도자훈련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생활교육은 변화·발전하였다. 무엇보다 학생수가 증가하면서 체계적인 개편이 필요했다. 교육기간을 6주로 단축하고, 프로그램을 세분화했다. '사회지도자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인성교육에 리더십 훈련을 가미했다. 이 시기 교육의 지향과 내용에 있어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진보적 변화가 있었다.

- 1988년 사회지도자훈련 I, II, III로 나누어 인성교육 실시
- 1997년 환경문제를 주요 이슈로 인성교육에 반영
- 1998년 바롬교육센터 완공 및 이전
- 1999년 신문형태의 '바롬21' 발간

2000

인성교육의  
전환

울곧고 창의적인 여성리더양  
성을 위한 '바롬교육'

1998년 바롬교육센터를 완공하면서 보다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인성교육의 시대가 열렸다. 2000년부터는 '바롬교육'으로 명칭을 바꾸고 교육기간을 6주에서 3주로 변경하였다. 교양필수과목인 바롬교육은 I, II, III 과정으로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이 전문성을 갖춘 사회인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인품과 자질, 리더십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다채롭게 구성되었다.

- 2004년 기본적인 응급상태에 대한 안전교육 시간 추가
- 2007년 영어 QT방송과 영어 QT나눔 모임 실시

2011

글로벌 여성 지도자  
교육

글로벌 여성 리더양성을 위한 '바  
롬인성교육'

2011년 개교 50주년을 맞아 명칭을 '바롬인성교육'으로 변경하고, 글로벌 소양교육을 바롬인성교육 I, II, III 단계의 전 과정에 공통으로 설치했다. '나', '우리', '세계'에 대한 이해, 공감적 의사소통을 통한 관계와 배려의 능력 함양, 그리고 실천을 통한 사회문제해결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 교외교육과 지도사 과정도 신설하며 확장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 2011년 학부모인성 교육과정 시작
- 2012년 바롬인성교육 지도사 과정 신설

# 잘 가르치는 대학, ACE

서울여자대학교는 지난 50여 년간 여성 교육에 관한 탄탄한 내실을 다져온 대학이다. 이같은 서울여자대학교의 전통은 지난 4년간 진행되어 온 ACE사업 추진에 의해 새로운 날개를 달게 되었다. 서울여자대학교가 앞장서는 선구자적 교육모델 개발 혁신은 멈춤 없이 진행 중이다.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 선정  
'교육중심대학'의 가치를 드높이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ACE 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지원사업은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부교육 선진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을 다른 대학에도 확산하여 전체 학부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교육부 주관 재정지원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으로 말 그대로 경쟁력 있는 선도대학을 중점적으로 선발해 재정을 지원해준다.

서울여자대학교는 지난 2010년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 지원사업(ACE)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특히 국내 여자대학교 중 유일하게 이 사업에 선발되어 그 의미가 더욱 특별했다.

'지·덕·술을 겸비한 여성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교육목표하에 그동안 혁신을 더하며 발전해 온 서울여자대학교는 2010년 ACE사업에 선정될 수밖에 없는 '준비된 대학'이었다. ACE사업에 앞서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육성사업>, <학문분야평가 우수대학>, <수도권 특성화사업 지원대학> 등에 선정되며 세계 수준의 학부교육중심대학으로 도약할 발판을 이미 마련해왔기 때문이다. 2010년 ACE사업 선정과 함께 <대학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선정되고 2012년에는 교육부 주관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과 <입학사정관제 선도 & 모델 대학>으로 각각 선정된 것 역시 '교육중심대학'으로서의 교육 브랜드를 확고히 쌓아온 서울여자대학교의 성과를 널리 드러내는 결과였다.

PLUS형 인재들  
배움과 나눔의 선두에서 서다

서울여자대학교는 ACE사업 선정을 기해 'PLUS형 인재'를 양성하는 공동체 기반의 학부교육 선도모델' 창출을 바탕으로 학부교육 선진화를 추진해 왔다.

## SWU CQI+

수강 학점과 성적 위주였던 기존의 재학생 평가 시스템에서 벗어나 학부생활의 다양한 성과를 정확히 판단하고 피드백하도록 고안되었다. 이 시스템은 각각의 재학생이 PLUS형 인재로서의 핵심역량을 얼마나 잘 갖추어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평가해줄 뿐만 아니라 학생 개인별로 앞으로 해야 할 맞춤형 추천 교육과정에 대한 내비게이션 기능도 제공한다.

서울여자대학교가 제시한 인재상인 PLUS형 인재는 함께 어울릴 줄 아는 행복한 인재이다. 이를 위해 '자신의 영역에 대한 창의적 전문성', '올바른 인성과 넉넉한 소양', '실질적인 봉사'와 실천' 3가지 핵심역량을 기르고자 대학 내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교육 프로그램을 특별히 공동체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다. 개교 당시부터 진행되어 온 생활공동체 기반의 교육은 10가지 공동체로 확대되었다. 산학연 공동체, 학부모 공동체, 교수 공동체 등을 나누고 해당 공동체에 맞게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해오고 있다.

더불어 서울여자대학교는 ACE의 주요사업으로 선진화 영역을 7가지로 선정하고, 각 영역별로 목표를 설정해 달성해왔다. 7개 영역은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비교과 교육과정, 학생선발, 학사제도 및 학생지도, 교수-학습 지원체계, 교육의 질 관리체계에 나뉜다. 서울여자대학교의 ACE사업은 무엇보다 잘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 교육방법의 모델을 만드는 일과 효율적인 학습관리, 교수학습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서울여자대학교는 2013년 마지막 4년차 사업으로 학부교육 품질관리를 위한 획기적인 교육 품질 인증시스템 <SWU CQI+ Seoul Women's University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를 구축한다. '무엇을 가르쳐야 한다'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줘야 한다'는 방향으로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할 <SWU CQI+>는 궁극적으로 서울여자대학교의 학부교육모델이 현실적인 결실을 맺는데 확고한 기반으로 기능할 것이다.

서울여자대학교는 ACE사업의 성과도 적극적으로 나눈다. 'Learn to Share, Share to Learn' 서울여자대학교가 제시하는 슬로건이다. 새로운 배움은 또 다른 공동체에 나눠주기 위한 배움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향후 서울여자대학교는 지난 ACE사업의 성과인 명품 학부교육 모델을 외부와 함께 공유함으로써 학교 스스로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을 실천하는 바른 모범으로 거듭날 것이다.



바른 교육의 새로운 무대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며 끊임없이  
세상의 중심으로 향하는 서울여자  
대학교. 백년대계! 교육에 대한 염  
원이 이곳에 오롯이 담겨 있다. 50  
주년기념관은 세계적인 여성 명문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교육·  
연구의 터전으로서 21세기 서울여  
자대학교의 빛나는 상징이 될 것이  
다.

# 50주년기념관

## 서울여자대학교의 과거와 미래가 소통하는 곳

서울여자대학교는 지난 2011년에 개교 50주년을 맞아 그 해를 제2창학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더욱 단단하고 특성화된 학부 중심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50주년기념관'은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여자대학교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다지며 힘과 역량을 하나로 모아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상징이 되었다.

2013년 5월 서울여대인의 염원과 노력을 결집해 완공된 50주년기념관은 지하 2층, 지상 7층의 규모로 서울여자대학교의 가장 초입에서 그 위용을 자랑한다. 50주년기념관에는 바롬인성교육과 기독교 여성교육의 산실인 우리 대학의 역사를 전시하는 박물관과 공동체 학습을 위한 강의실 및 세미나실, 교수 연구실을 비롯한 다양한 편의시설 등이 조성되어 교내 구성원의 만족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미래문화교육단의 외국어교육원과 ICT교육원 등이 자리해 국제화와 정보화에 관한 열린 교육의 기회를 재학생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설명 서울여자대학교 50주년기념관 위치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621번지지역지구 자연  
녹지지역, 학교용지대지면적 159,043.00㎡  
(48,110.51평)건축면적 3,722.19㎡  
(1,125.96평)  
연면적 22,453.00㎡(6,792.00평)지하  
규모 2층, 지상7층  
주차 106대  
마감 화강석, 커튼월

전통의 가치를 잇는 서울여자대학교 박물관

서울여자대학교 박물관은 1998년 9월 처음 문을 연 이래 주로 조선시대와 근현대의 생활사 관련 자료 및 서울여자대학교의 역사와 관련된 문서, 사진, 기념품 등을 수집·전시하고 있다. 또한 매년 새로운 주제로 기획전시회를 열고 있으며 교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유적답사를 함께 진행한다. 이제 박물관은 50주년기념관의 중심부로 자리를 옮겨 서울여자대학교 역사실을 함께 운영하게 되었다. 상상의 문을 열고 미래와 소통하는 서울여자대학교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줄 박물관은 이곳을 드나드는 학교 내외 모든 사람에게 50주년기념관의 핵심 가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연구시설

50주년기념관 3층에서 7층에 이르는 교육·연구 시설은 창의성과 인성을 키우는 지성의 산실이다. 각각의 실은 수용인원을 고려한 최적의 단위실로 구획되어 강의와 연구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바로 이곳에서 학문의 영역을 넘나드는 소통과 시대를 초월하는 창의를 바탕으로 21세기 서울여자대학교의 미래가 새롭게 움트며 자라난다. 시각적으로 개방된 밝고 쾌적한 수많은 연구공간은 서울여자대학교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배양하는 지식 인큐베이터로 손색이 없다.





**Green Campus** 환경적

- 캠퍼스 지형과 녹지공간 활용
- 시각적 차원의 녹지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



**Open Campus** 개방적

- 열림과 닫힘이 조화로운 공간 구성
- 조용한 연학 분위기 조성
- 지역주민에게 개방된 캠퍼스



**Walking Campus** 상호연결적

- 레벨차를 이용한 다층적 보행가로 형성
- 다양한 입체적 외부공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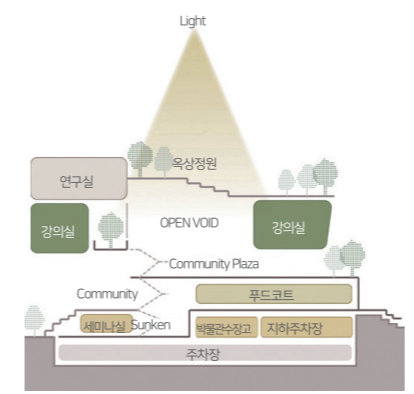
## 서울여자대학교의 미래, 공간에 담다

2011년 5월 19일, 50주년기념관의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이후 여러 동문과 교내외 파트너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50주년기념관이 차곡차곡 층을 높였다. 대학교회에서 4억 원을 출연한 것에 이어 총동창회와 동문들 그리고 교원, 직원들의 기부가 이어졌다. 총 473명의 동문과 학부모, 기업 등이 보여준 관심과 사랑은 50주년기념관을 든든히 받쳐주었다.

50주년기념관에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해서 발전과 진화를 멈추지 않겠다는 서울여자대학교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자연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간에 구성원들의 다양한 커뮤니티가 존재하는 곳, 걷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공간의 흐름이 이어지는 곳,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내어주는 곳, 이곳에서 누구나 서울여자대학교의 정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 Green Campus

다양한 옥외 휴게공간 및 조경공간



## 건전한 성장을 고민한 친환경 건축

50주년기념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맞춘 녹색건물(친환경건축물)로 설계되었다. 주된 방향은 옥상을 녹지 화해 건물 열부하를 감소시켜 에너지를 절감하고 자연환기와 광덕트를 이용한 자연채광시스템을 적용하며 우수처리 시설을 갖춰 수자원을 절감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옥상에 태양전지판을 설치해 태양광 발전을 활용하고 친환경 보온·내장재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조명제어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최고의 친환경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합리적인 시스템 계획으로 반송 동력을 절감하고 적극적인 자연에너지를 활용하도록 한 50주년기념관은 앞으로 서울여자대학교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데 명실상부한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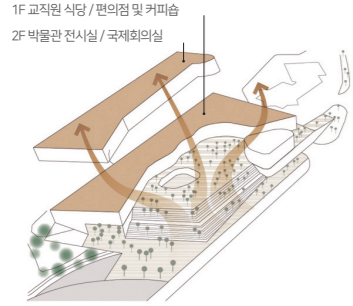
**빗물의 활용** 인공지반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재활용하는 친환경시스템을 구축했다. 빗물재활용 시스템을 도입해 수자원 절감계획을 세우고, 빗물저류시설을 이용해 조경용수 및 세차용수 등으로 사용한다.

**태양광 에너지원 공급** 옥상 공용부하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했다. 태양전지 어레이를 통해 무공해, 무한정 에너지원인 태양광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또한 내부 조명의 경우 LED LAMP를 활용해 조명 에너지 비용도 절감한다.

**옥상정원 조성** 50주년기념관의 고층부는 옥상정원으로 조성되었다. 휴식과 교류, 만남이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6층과 7층이 연결되면서 보행의 접근과 교류를 극대화하였다. 옥상녹화를 통해 건물의 열부하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가진다.

# Open Campus

외부 개방시설의 저층부 집중 배치



## 지역사회와 학생들에게 열린 커뮤니티 플라자

50주년기념관에는 열림과 단합이 조화롭게 공존한다.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조용한 면학 분위기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활력 있고 다채로운 행사가 이 한곳에 모여 있다. 자연스레 걸으며 만남을 이어가는 소통의 공간으로 설계된 50주년기념관에서 서울여대인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눌 것이다. 1층에 교직원 식당, 커피숍이 마련되었고, 2층에는 박물관과 국제회의실을 조성하는 등 저층부에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을 집중 배치하여, 학생들 사이에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도록 돕는다. 특히 3층에 외국어교육원과 국제협력팀, 그리고 외국인지원센터가 자리함으로써 글로벌 프로그램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영어 교육과 함께 외국인 교환학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며 보다 효과적인 국제교류의 장을 제공할 것이다.

중심부의 코어 중심의 광장을 통해 내부로 접근한다. 중정을 통해 스미는 빛과 다양한 커뮤니티 곳곳에서 일어나는 활기가 밝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 사람과 생각이 막힘없이 흐르는 보행 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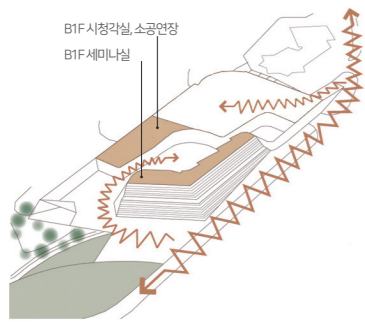
50주년기념관은 워킹 캠퍼스를 구현하고 있다. 주변 경사지형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된 외부계단과 플라자 등을 통하여 다양한 레벨에서 50주년기념관으로 진입할 수 있다. 주변시설을 고려하여 건물을 배치하고 내부시설과 개방시설, 이용자의 동선을 명확하게 분리함으로써 보행자의 흐름이 끊김이나 막힘없이 자연스럽게 연속되도록 했다. 또한 열린 느낌을 극대화하기 위해 건물의 저층부를 비우고 공간에 여유를 풀어넣었다.

외부로 열린 계단 50주년기념관을 들어서려면 캠퍼스와 연결된 두 방향의 계단을 올라야 한다. 학생과 동문을 환영하는 정문 쪽 진입 계단과 캠퍼스 쪽으로 난 계단은 캠퍼스와 건물을 연결하며, 자유로운 보행 흐름을 만들어낸다.

다양한 레벨의 출입구 대지의 높낮이 차이를 이용해 다양한 방향에서 50주년기념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문 방향과 캠퍼스 방향으로 출입구를 내었다. 캠퍼스 외부로 열린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을 극대화한다.

# Walking Campus

머무르고 싶은 캠퍼스



Roof	옥상정원
교수시설	7F 교수연구실, ICT 교육원 6F 교수연구실, 첨단강의실, ICT 교육원강의동
학생시설	5F 강의동 4F 외국어교육원 국제협력팀, 외국인지원센터국제
외부개방시설	3F 회의실, 박물관 전시실
편의시설	2F 식당 및 편의시설 1F
	B1F 시청각실, 소공연장, 세미나실, 지하주차장B2F 주차장





길을 걸어가려면 자기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합리적이고 선량한 생활을 영위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기와 그리고 타인의 생활을 어디로 이끌어 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레프 톨스토이(러시아의 작가 겸 사상가, 1828~1910)

국어국문학과

우리는 늘 외국어 실력에 대해 자문하면서 정작 자신의 모국어 실력에 관해서는 의문을 품지 않는다. 국어국문학과와 국어는 일상 한국어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고대로부터 형성된 넓고 깊은 국어, 별빛 같은 우리 단어들로 수놓아진 문학, 그 깊고 높은 국어의 세계를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속에서 만날 수 있다.

영어영문학과

18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의 대영 제국, 그리고 20세기 중반 이래 미국의 영향만으로도 영어는 지구상 모든 언어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언어임이 틀림 없다. 영어영문학과에서는 영미의 언어와 문학, 그리고 문화에 대한 지식과 창의적 분석능력을 갖춘 전문인을 길러내고자 한다.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우리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학문이다.

불어불문학과

자유와 '평등'과 '박애'. 프랑스는 자연권의 개념을 만들어낸 나라이다. '절대 왕정'이라는, 그 역시도 독특한 체제를 단박에 전복시켜 버리고 혁명을 통해 새로운 사회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를 창안하고 전 세계에 천명했다. 이렇게 선구적이며 역동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문학과 언어에 투영되어 있는 것은 바로 합리주의와 민주정신을 바탕으로 이룩된 프랑스 문화일 것이다.

독어독문학과

독일은 예로부터 시인과 사상가의 나라이다. 괴테와 하이네, 토마스 만과 하인리히 뢰에 이르러까지 독일 작가들은 민족의 양심으로 또 스승으로 존경받아 왔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독일이라고 하면 무거움과 진지함이 연상된다. 이를 스스로도 의식하듯 최근 독일 신세대작가들은 작가는 곧 지식인이라는 도식을 스스로 탈피하며 대중과의 활발한 소통을 추구하고 있다.

중어중문학과

중국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1/5이 사용하는 언어로, 모든 언어를 통틀어서 용자가 가장 많다. 그러나 중어중문의 진정한 가치는 단지 사용자가 많다는 데 있지 않다. 수천 년 전 시가 305편을 담고 있는 '시경'을 시작으로 중국 문학은 인근 여러 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왔다. 21세기 태평양시대의 중심,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언어와 문학을 통해 그 근원을 파고든다.

일어일문학과

한일관계의 오랜 역사적 특수성 때문일까. 멀고도 가까운 나라라는 표현 안에는 수많은 복잡미묘한 의미가 담겨 있다. 하지만 역시 일본은 지근거리에서 우리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나라이다. 일본 문학과 일본문화에 정통한 전문가, 일본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는 지성인의 양성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다.

사학과

역사학은 미래학이다. 지나온 발자취를 이해하고 현실을 바로 인식해 그로부터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게 하기 때문이다. 역사의 거울 앞에 선 인간만이 비로소 선명한 현실의 상을 마주할 수 있다. 역사는 매순간 도처에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 온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역사적 사실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가가 말을 걸 때만 말하기 때문이다 (E.H.카, 『역사란 무엇인가』 중)."

기독교학과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을 지켜보며, 마찬가지로 유한하고 범속한 우리 모든 인간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바로 영원불변하는 진리이다. 그 물음에 답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다. 기독교학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종교적 진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인간과 사회를 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기독교 정신으로 교회와 세계를 위해 봉사할 인재를 길러내고자 한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방식이 최선이어서가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철학자이자 경제학자, 1806~1873)

경제학과

한자문화권에서 쓰이는 '경제'라는 말은 '경제제민( )' 또는 '경국제민( )'의 약자이다.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케 한다는 뜻이다. 영어권에서 쓰이는 'Economy'라는 말은 집을 뜻하는 'Oikos'와 관리·경영을 뜻하는 'Nomos'가 합해진 'Oikonomos'가 어원이다. 가장 근본이 되는 가정의 안녕이 경제학의 출발이다. 가정에서 출발해 공동체를 편안하게 하려는 크고 높은 뜻을 가진 학문이다.

경영학과

인간의 이익추구 활동은 '기업'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효율을 도모하기에 이르렀다. 경영학과는 기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효율적 방법을 모색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극복하며 최대의 실리를 추구하기 위한 내용을 공부한다. 오늘날에는 경제의 국경이 사라지고, 글로벌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경영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되고 있다. 한국사회뿐만 아니라 세계화에 걸맞은 수준의 교양과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문헌정보학과

사서는 인류의 집단 기억을 보존하는 한편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개인들의 삶의 의식 속으로 전달하는 지식전달자이다. 또한 오늘날의 사서는 디지털 네트워크 정보환경에 맞춘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보 전문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문헌정보학과에서는 현재 개발되는 정보시스템의 요소인 이용자 인터페이스, 메타데이터 가공, 이용자 분석, 네트워크 운영, 정보 리포지터리 관리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실습을 병행하고 있다.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는 모든 국민은 존엄하며 기본적으로 평등하다는 인식에 따라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다. 초기 산업사회에서는 빈곤 해결이 주된 관심이었으나 앞으로는 전 생애에 걸쳐 보다 '인간다운 삶'에 관심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인간과 사회복지에 관한 가장 실천적인 학문으로 누구 하나에게도 소홀함이 없는 행복의 실현, 그 파랑새를 잡는다.

아동학과

지구의 역사 위에서, 인간의 시간은 빠르게 흐른다. 따라서 찰나와 같은 십수년 사이 금세 어른이 되고 말 아동은 '어린이'가 아니라 언제나 '사회'의 주역'으로 중요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아동학전공은 유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심리학적·교육학적 연구를 기초로 보다 효율적인 아동 이해와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아동학 전문가를 양성한다. 아동 관련 시설에서의 현장 실습과 연구를 통하여 건강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한다.

행정학과

행정학은 나라의 살림살이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근대국가 등장과 맞물려 백여 년 남짓한 학문의 역사. 그러나 짧은 연륜에 비해 비약적 발전을 이룩해냈다. 도시화에 따라 국가 전체의 응집성이 강화되며 그만큼 필요성이 절박했기 때문이다. 공공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공·사조직들의 연계망을 통한 여러 활동에 필요한 목표설정, 정책결정,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술체제 등을 망라한다.

언론영상학부

언론영상 분야에서의 기술발전은 언론영상의 사회적 위상을 격상시켰다. 연설과 공연이 광장과 극장이라는 장소적 제한성에 갇혀 있던 시대에 비해 그 사회적 파급력이 무한대로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분야의 발전 동력은 더 이상 기술과 지식이 아니다. 압도적인 미디어가 사라진 시대. 이제 새로운 키워드는 바로, 남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내용을 제시할 수 있는 '창의성'과 '기획력'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이다.

교육심리학과

교육이란 학교 안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바람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이 되는 인성과 지식을 가르치는 일이다. 덧붙여 변화와 성장을 통해 최대한의 자기실현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기도 하다. 교사의 가르침과 학생의 배움. 그 사이를 가득 메운 수많은 과정과 문제들 사이에 든든한 가교가 되기 위해 교육심리학이 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경험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신비이다.

신비는 예술과 과학의 근본을 이루는 진정한 모태이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확실한 길만을 추구하는 과학자는 결코 우주를 맑은 눈으로 바라볼 수 없다.

알버트 아인슈타인(물리학자, 1879~1955)

수학과

숫자는 발명되었다. 수학은 숫자를 다루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공간, 함수 등의 추상적인 존재의 성질과 그 관계를 탐구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학문인 수학은 본질적인 것만을 파악하여 기호로 표현하기 때문에 '과학의 언어'로 불린다. 다양한 응용을 통해 일상생활조차 송두리째 흔들 어놓는 수학의 위력은 자연과학과 첨단기술의 발전은 물론, 사회과학, 인문과학 등 거의 모든 분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화학과

원자는 물질의 궁극적 입자를 가리킨다. 원자가 실재( )한다는 깨달음에서 현대화학은 시작되었다. 이옥고 자신만의 고유한 거대 산업분야를 탄생시켰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화학의 산물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 미래에도, 자동차의 혁신부터 질병과의 싸움까지, 우리는 화학과 더불어 생활하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의류학과

옷을 입는다는 것은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만의 행동양식'이다. 또한 옷은 인간을 추위, 더위, 직사일광, 그리고 고열이나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한다. 그래서 옷은 필연적으로 인체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과학'이 된다. 옷은 사람들의 의식, 무의식 속에 널리 퍼진 새로운 풍조, 소위 패션을 일으킨다. 인간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의류학과에서는 옷에 관한 이 모든 해석을 풀어낸다.

원예생명조경학과

인간이 유량을 멈추고 정주생활을 할 때부터 원예와 조경은 시작되었다. 원예와 조경은 땅을 이해하고 자연을 가꾸고 생활공간 주변으로 자연을 끌어와 만드는 일이다. 원예생명조경학과는 원예학과 식물생명공학, 조경학에 관한 이론과 실습을 통해 원예생명조경 분야의 전문가를 길러낸다.

생명환경공학과

생명환경공학과에서는 생명을 해석하기 위해 분자수준에서부터 시작한다. 분자의 총체인 생명체와 환경의 관계를 이해하고 나아가 이를 실질적인 분야에 응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초과목으로 분자생물학, 세포학, 미생물학, 생화학, 분자유전학, 발생학, 생태학, 면역학 등을 익힌 후에, 생명체와 주위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기후변화학, 생태환경교육, 동물생태학 등의 분야에도 정통해야 한다.

식품공학과

식품공학은 식품의 공학적 영역을 다루는 응용과학으로, 각종 식품의 제조 및 저장 방법 등을 습득하고 식품의 가공, 저장, 유통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리, 화학적 반응과 영양, 기호특성의 변화를 연구한다. 최근 21세기 첨단 분야인 유전공학 기법이 도입되어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는 생물공학의 중심이 되고 있다.

식품영양학과

인간 생존의 기본은 의식주( )이다. 식품영양학은 생존의 기본이 되는 식생활을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학문이다. 식품 섭취 후의 체내 변화과정 및 영양에 대한 규명, 식생활 전반과 급식관리 향상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지도력 있는 유능한 전문가를 길러낸다.

체육학과

스포츠는 넓게는 놀이를 위해 좁게는 경쟁을 위해 하는 유희적 신체활동이다. 체육학과는 국민 대다수의 여가를 위한 즐거운 스포츠부터 신체적 탁월성을 겨루는 선수들의 치열한 스포츠까지를 전반적으로 다룬다. 학문적 연구는 물론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 실습을 통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할 우수한 체육인 및 체육지도자가 길러진다.

아이디어를 들고 온 사람의 아이디어는 최고의 아이디어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훌륭한 아

이디어는 찾아 나서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시간이 드는 일이다.

스티브 잡스(기업인, 1955~2011)

컴퓨터학과

1946년 최초의 컴퓨터인 '에니악'이 발명된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컴퓨터의 출현은 우리로 하여금 급격한 문명의 전환을 몸소 느끼며 살게 하고 있다. 정보검색, 친구와의 채팅, 제품의 구매 등 이제 컴퓨터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다. 컴퓨터학과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사회를 가장 앞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유능한 컴퓨터 전문 인력을 길러낸다. 이들은 지금 문명에 새로운 길을 놓는 프론티어들이 될 것이다.

정보보호학과

이제 지식은 산재해 있고 정보는 온 세계 가득히 넘실댄다. 세계적으로 지식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사이버 범죄의 범위가 넓을 뿐 아니라 그 파급력이 커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의 전문인력 양성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사이버세계 파수꾼 정보보호전문가들에게는 전문지식, 실무능력과 함께 건전한 인성과 윤리가 반드시 균형 있게 갖추어져야 한다.

멀티미디어학과

미지의 세계는 우주나 심해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의 뇌 안에는 셀 수 없는 많은 상상들이 세상으로 뿔어져 나올 길을 찾고 있다. 21세기, 이제 드디어 길은 많아졌다. 정보를 표현·전달하는 매체인 미디어는 종래의 텍스트 기반 형태에서 오디오, 비디오, 그래픽,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광고 등이 하나로 통합되는 멀티미디어 형태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멀티미디어<sup>multi-media</sup>의 세상에서 머릿속 미지의 세계는 눈앞에 구현될 것이다.

콘텐츠디자인학과

콘텐츠디자인학과 의 인재들은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팔방미인이다. 새로운 매체들에 적용될 콘텐츠 개발을 위한 컴퓨터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디지털 문화콘텐츠를 직접 스토리텔링, 콘텐츠 기획, 디자인, 제작, 서비스, 마케팅하는 것은 물론 이들을 융합 및 편집하는 기술까지 갖춘 융합형 인재를 꿈꾼다. 컴퓨터 분야의 기본 기술과 콘텐츠 분야의 창조 기술을 양 날개로 상상 저편을 향해 비상한다.



현대미술과 (구 서양화과)

인간에게 언어가 없고 음악이 없던 때에도 그림은 있었을 것이다. 그린다는 것은 가장 원초적인 표현행위였다. 이제 미술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개인적인 활동에 머무르지 않는다. 새로운 시각과 예술의 역할에 대한 신선한 실험 정신으로 무장한 현대미술은 예술을 통해 바른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미술을 통하여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조적 인간을 육성하는 데까지 그 스펙트럼의 폭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공예학과

아무 생각 없이 쓰이는 일상의 물건에도 소박하나마 아름다운 꾸밈을 더하려는 마음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다. 그렇게 공예라는 분야는 탄생했다. 공예학은 기능성과 함께 조형미를 겸비한 생활도구를 만드는 조형예술 분야이다. 실용적이면서도 예술적 가치가 함께 어우러져 있어야 한다. 종이, 도자, 섬유 등 서로 다른 물성의 분야별 재료가 빚어내는 조형적 가능성에 대한 탐구가 공예학의 첫걸음이다.

시각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의 다른 이름은 커뮤니케이션일 것이다.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시각디자인은 짧은 순간 강렬하게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적 시각 언어를 고안한다. 디자인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며 문자를 배제하고도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구상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 다방면의 지식이 중요한 이유이다. 타이포그래피, 출판디자인, 뉴미디어 디자인, 인포메이션디자인, 인터랙티브디자인 등을 공부한다.

산업디자인학과

주위를 둘러보라. 오래전부터 곁에 놓여있던 작은 물건 하나, 늘 보던 시선 그대로 무심히 스치는 법이 없는 호기심 가득한 사람이라면, 물건의 기능적인 본질과 조형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형태를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예리함을 가진 사람이라면 산업디자인학과의 재목이 될 만하다. 환경을 조성하는 산업제품과 제품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창조활동인 산업디자인은 한계와 제한을 두지 않고 그 영역을 무궁무진하게 확대해 가는 중이다.

# 학문의 열기가 가득한 화랑로 621번지

건축과 자연은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 그윽한 시간으로 우리를 감싸 안는다. 서울여대  
인이 함께 머무는 캠퍼스의 크고 작은 공간들에  
바른 교육이 꽃을 피운다.

## 살아있는 푸른 강의실, 삼각숲

서울여자대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좋아하고 즐겨 찾는 이곳은 그 모습이 삼각형을 닮았다 하여 삼각숲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곳에서 서울여대인들은 안식을 느끼고 사색을 즐기며 젊은 날의 고민을 나눈다. 숲의 푸름을 간직한 너른 삼각숲은 서울여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랜드마크이다.



## 마음껏 누리는 우리만의 공간, 학생누리관

누리관의 '누리'는 학생들이 복지와 편의를 누리다라는 뜻으로 학우들이 직접 이름을 지었다. 서울여자대학교 멀티플렉스 공간으로 학생누리관에는 식당과 카페, 인터넷 카페, 네일숍 등의 편의시설과 과방, 동아리방이 있다.



## 캠퍼스 속 행복한 보금자리, 살롬하우스

서울여자대학교는 캠퍼스 중심에 기숙사가 있다. 살롬하우스는 2008년에 신축되어 수준급의 시설을 자랑한다. 1인실, 2인실, 4인실로 이루어졌으며, 방안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구비되어 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정맥인식시스템을 도입, 손등의 정맥을 찍어 출입을 통제한다. 기숙사 생활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룸메이트. 살롬하우스는 룸메이트 제도를 실시해, 마음이 맞는 학생과 함께 생활하도록 한다.



## 서울여자대학교의 시작이자 중심, 행정관

서울여자대학교를 움직이는 주요 부서들이 여기에 자리하고 있다. 교무처, 사무처, 기획정보처, 입학홍보처 등 행정부서가 밀집해 있다. 건물 한쪽을 가득 덮는 담쟁이가 아름답다.



## 학문의 기초를 세우는 곳, 인문사회관

인문대 학생들과 사회과학대 학생들이 주로 전공수업을 듣는 공간이다. 토론형 강의실과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수업행동분석관찰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각종 강연과 세미나가 열리는 인사랑당과 휴게 공간인 하늘공원, 최근에 마련된 파우더룸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이 9층의 건물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 찬란한 열정으로 누리는대학 생활

생각에도 행동에도 도전이 있어야 젊음이다. 서울여자대학교의 사계절! 그 안에 서 누리지 못할 꿈과 자유는 없다.

## 서랑제 봄과 함께 찾아오는 상큼한 축제

흠과 나무가 생명으로 들뜨고 공기마저 연둣빛을 뿜어내는 봄이 오면 서울여자대학교의 젊음도 생동하기 시작한다. 해마다 5월이면 서울여대인의 에너지로 가득한 서랑제(서울여자대학교 사랑 대동제)가 개최되기 때문이다. 매해 새롭게 기획되는 다양한 행사들에 쏟아지는 열광이 대단하다. 과별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과 행사들은 그대로 각 학과의 추억과 역사가 된다.



## 하나 되는 우리, 응원가 플래시몹

5월 푸른 잔디광장에 서울여대인들이 모였다. '하나 되는 우리'와 'Running', 2곡의 응원가 플래시몹이 열린 것이다. 이날 총학생회, 응원단을 포함해 많은 서울여대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역동적인 응원을 선보였다.



## 프로 못지않은 런웨이, 졸업패션쇼

의류학과 학생들은 매년 봄, 졸업 패션쇼를 연다. 2013년 5월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열린 27회 패션쇼는 영화를 주제로 9개의 테마로 구성되었다. 89명의 학생들은 시대와 장르를 망라한 영화의 배경과 인물 등에서 모티브를 얻어 자신만의 감각과 아이디어를 담은 작품을 공개했다. 이날 의류학을 전공한 전혜정 총장이 카메라로 출연해 박수를 받았다.



## 환경이슈 음악으로 풀다, 환경음악콘서트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수업의 일환으로 열린 환경음악콘서트. '건강한 먹거리, 아름다운 자연'을 주제로 환경음악가 이기영 교수와 한국기타문화예술원 박종화 부원장, 국립국악원 문현 단원 등 관련 분야 저명인사들이 참여해 환경운동의 참 의미와 자연의 소중함을 음악으로 전달했다.



## 지구를 위해 우리가! 에코페스티벌(위)

실천 없이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서울여자대학교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09년 '에코캠퍼스 실천단'을 창단했다. 지렁이를 활용하여 음식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교내에 텃밭을 조성해 학생식당에 작물을 조달하는 등 서울여자대학교를 에코캠퍼스로 조성하기 위한 이들 실천단의 활동은 기발하고 창의적이다.

## 자연이 주는 선물, 지렁이가 쓴다(아래)

서울여자대학교는 지렁이를 키워 음식폐기물을 처리한다. 교내의 카페와 식당에서 발생한 음식쓰레기를 지렁이순환시스템으로 처리하여 비용을 절감한다. 에코캠퍼스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 행사는 2013년 5회째 진행 중이다.

# 여성 인재를 위한반세기

지난 52년, 서울여자대학교는 배운 지식을 실천함으로써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가르침을 선택해왔다.

## 1920~1959 → 1960~1979 → 1980~1989 →

기독교와 한국여성의 조우,  
서울여자대학의 탄생

1957.9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42차 총회에서 서울여자대학 설립 결의

1958.7  
재단법인 정의학원 인가  
전필순 목사 초대 이사장 취임

1958.7  
교지 105,918㎡ 분양

민족의 발전 한가운데교육으로  
실천하는 소명

1960.12  
서울여자대학 설립인가

1961.4  
고황경 박사 초대 학장 취임  
및 개교(신입생 98명)

1965.2  
제1회 졸업식

1979.12  
대학원 설치인가

약진을 위한 도약의 발판, 종합대학교의 시대를 열다

1982.3  
교기 및 교표 한글 표기로 변경

1988.10  
종합대학교로 체제 개편(4개 단과대학, 26개 학과, 대학원 18개 학과, 연구소 6개로 발전)

1989.3  
정구영 박사 초대 총장 취임

## → 1990~1999 → 2000~2009 → 2010~

한국을 대표하는 명문여자대학으로 발전

1991.9  
평생교육원 설립

1992.3  
생활관 교육 명칭을  
바름교육으로 변경

1998.5  
바름교육센터(13,200.03㎡) 완공

1999.4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선정

위대한 백년을 준비하는발전과 성장

2000.5  
남문(39,43㎡) 준공

2003.6  
인문사회관(17,804.59㎡) 준공

2008.2  
학생누리관(9,959.71㎡) 준공

2008.8  
살롬하우스(15,291.06㎡) 준공

응비하는 서울여자대학교, 제2창학을 위한 도전

2010.6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잘 가르치는 대학) 선정

2011.5  
대학로 캠퍼스 개관

2012.5  
입학사정관제 운영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및 선도모델 인센티브 지원 대학에 선정

2013.3  
전혜정 박사 제7대 총장 취임

2013.5  
50주년기념관(22,453㎡) 준공

2013.7  
교육역량강화사업 2년 연속 선정





SEOUL WOMEN'S  
UNIVERSITY

다르다

*act*

*different*

SWU #2 다르다 *act different*



SEOUL WOMEN'S UNIVERSITY



다르다

act different

- 02 총장 인사말
- 04 색다른 교육의 특징, 서울여자대학교 Style다른
- 12 영어 교육
- 20 다른 글로벌 교육
- 24 다른 나눔 교육
- 28 다른 창업 교육
- 32 다른 취업 교육
- 36 다른 가르침과 연구
- 44 남다른 동문들
- 48 바른 생각 그래서 다른 우리, PLUS형 인재

서울여자대학교, 다르다 그래서 다르다

## #2. 다르다

*act different*

일관성 위에 이루어진 변화와 발전은  
조금 느리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한다.

일관성이란 변하지 않는 가치의 소중함, 그것을 지켜가는 것. 서울여  
자대학교가 5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지켜온 것은 바로 사람다운 사  
람, 대학다운 대학의 모습이다.

바른 사람의 길, 바른 배움의 길을 걸어온

지난 50여 년의 성장은

서울여자대학교를 다른 길로 이끌었다.



## Message from the President



### ‘세상을 깨우고, 헌신하는’ 서울여자대학교의 색 을 더욱 선명하게 하 는 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학 서울여자대학교는 올해로 개교 5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반세기를 넘은 현재,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명문 여자대학교로 성장하였으며, 그동안 시대가 원하는 여성 전문인과 수많은 여성 리더를 배출하면서 한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을 깨우고, 헌신하는’ 21세기형 여성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노력할 것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는 3년 연속 ‘입학사정관 선도대학 및 모델대학’,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등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자대학으로서 유일하게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으로 선정되며 학부교육의 선진모델을 창출하고, 학부교육의 내실화를 선도할 수 있는 명실상부 앞서 가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서울여자대학교만이 가진 교육적 신념을 더하여 ‘글로벌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잘 가르치는 명문대학’으로 완성시키고자 학교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서울여자대학교의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가 양성하는 ‘PLUS형 인재’는 ‘우리가 나보다 똑똑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화합형 인재입니다. 이를 위해 창의적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엘리트 교육은 물론, 기독교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서울여자대학교만의 ‘바름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폭넓은 지식과 함께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우리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하고자 합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여성 지도자의 리더십이 주목 받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여성의 잠재력이 발휘되면서 국가를 이끌 핵심경쟁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여성이 가진 부드러움과 섬세함, 배려와 포용력,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소통능력이 21세기 급변하는 시대에 통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서울여자대학교는 여자대학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절감하며,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세상을 깨우고, 헌신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배출할 것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는 앞으로 눈부시게 발전하여, 학부모에게는 자식을 보내고 싶은 대학, 학생들에게는 정말 다니고 싶은 대학, 기업인들에게는 인재를 선발하고 싶은 대학, 나아가 사회의 모범이 되고, 구성원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대학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의 새로운 역사에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권혜경**

## 공동체 기반 교육

서울여자대학교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약 120억 원을 지원받는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 지원사업(ACE)'에 선정돼 교육 과정의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해왔다. 그중에서도 'PLUS형 인재를 양성하는 공동체 기반의 교육 시스템'은 대학 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 '나가 아닌 '우리' 안에서 배우다

'PLUS형 인재'란 자신이 속해 있는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학교,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도움이 되고 플러스가 되는 사람을 뜻한다. PLUS형 인재의 세 가지 핵심 역할은 창의적 전문성, 인성과 소양, 봉사와 실천이다. PLUS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는 공동체 기반 교육을 강화했다. 공동체 교육은 서울여자대학교의 특화된 교육 과정으로 건학 당시부터 전교생이 4년간 함께 생활하며 인성과

리더십 교육을 받았다. 최근 여러 대학들이 시도하고 있는 'Residential College'의 선두주자인 셈. 그 전통을 이어받아 지금도 1학년은 3주, 2학년은 2주 동안 기숙형 인성 교육인 바롬인성교육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이러한 서울여자대학교만의 독특한 생활 공동체 기반 교육은 ACE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10대 공동체로 확대되었다. 10대 공동체는 생활공동체, 학습공동체, 교수공동체, 사제공동체, 지역사회공동체, 산학공동체, 글로벌공동체, 학제공동체,

사이버공동체, 학부모공동체로 나뉜다. 이 중 바롬인성교육으로 대표되는 생활공동체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끌어가는 사이버공동체, 재학생 부모들로 구성된 학부모공동체는 서울여자대학교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형태의 공동체다. '나가 아닌 '우리' 안에서 인성을 함양하고 지식을 쌓는 서울여자대학교의 차별화된 교육 과정은 국내 다른 대학들에게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앞으로 '공동체 기반의 학부 교육'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하는 대학들에게는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 SWU CQI+

서울여자대학교는 국내 대학 최초로 교육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교육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학부교육 질 관리 시스템(SWU CQI+)'을 선보였다. SWU CQI+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보다 충실하게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량 강화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캠퍼스 마일리지 제도, 학생 포트폴리오 및 평가 시스템, 교수 업적 평가의 토대가 되는 교수 포트폴리오, 풍부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교과 과정 포트폴리오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 국내 대학 최초의 학부교육 품질관리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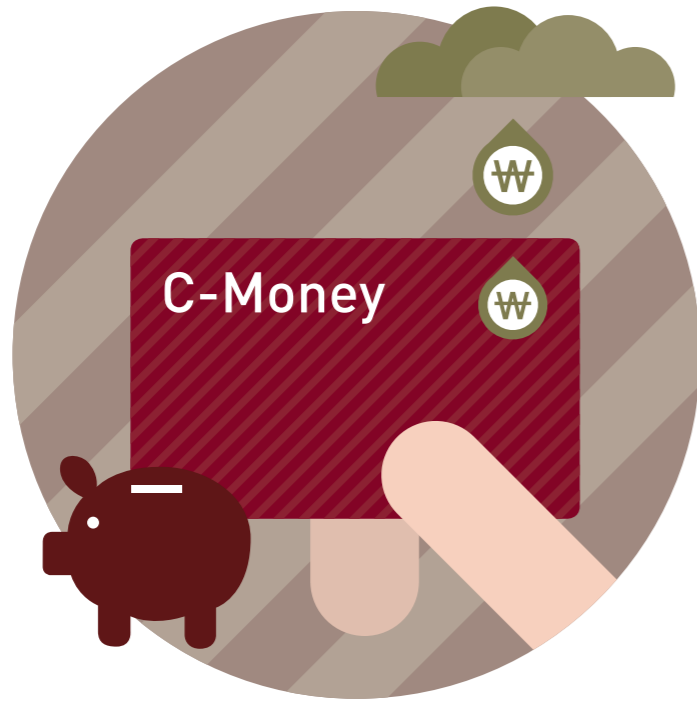
교수 포트폴리오 시스템은 교육은 물론 연구, 학생 지도, 대외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정리함으로써 기존의 강의 평가 위주에서 벗어나 보다 폭넓게 교수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학생 포트폴리오 시스템은 더욱 획기적이다. 학생들은 재학 기간 동안 교과활동, 비교과활동, 취업준비 활동 등을 모두 자료화한다. 이를 토대로 서울여자대학교가 지향하는 PLUS형 인재 상 구현에 필요한 핵심

역량의 관점에서 학생 개인별 교육효과를 실시간으로 진단, 평가한다. 자신의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다. 학생 개인의 대학생활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지도 교수가 학생 상담이나 추천서를 써야 할 때에 요긴한 자료로 쓰인다. 즉, 학생, 교수, 교과과정 등 다양한 대상으로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교육 품질 개선을 적시에 이룰 수 있는 차세대 시스템. 특히 정량적이며 누적된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과목이나

교과과정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교육 품질 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앞으로 서울여자대학교는 SWU CQI+의 지원을 바탕으로 교양, 전공, 비교과 교육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부 교육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수강 학점과 성적 위주 아닌 학생의 잠재 역량과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는 다면적 평가 방식은 새로운 학부교육 인증 및 평가 시스템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캠퍼스 마일리지

SWU CQ+ 시스템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캠퍼스 마일리지는 학생들이 비교과 활동이나 경력 개발, 자기 계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인센티브 제도. 공모전 수상, 전공 관련 소학회 활동, 공인외국어점수 향상, 봉사활동 등에 모두 일정한 캠퍼스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 장학금으로 돌려주는 신개념 인센티브

캠퍼스 마일리지란 학생들이 재학 기간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증빙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기록으로 남기는 한편 이것을 점수화하는 방식이다. 학기 말에 누적된 마일리지가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장학금으로 환산해 지급받는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성적 우수자들이 받는 장학금과는 달리 캠퍼스 마일리지 장학금은 학교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학생들의 호응에

힘입어 매학기 캠퍼스 마일리지 장학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마일리지 적립 현황은 학생 개인의 대학 생활 전체가 담겨 있는 일종의 '생활기록부'다. 기존에는 졸업을 위해 필요한 학점, 교과목 정도만 점검했지만 이제 학생들은 캠퍼스 마일리지를 통해 자신이 세운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교과목이 더 필요한지,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입사 지원서를 작성할 때도 편리하게 자신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비교과 활동이나 취업 및 경력개발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된 마일리지

항목에서 서울여자대학교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경력 개발 활동으로 전체 마일리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여자대학교는 보다 효과적인 취업 지원을 위해 취업 로드맵을 만들어 제공하고 로드맵을 수료한 학생들에게는 최고 마일리지를 지급하여 이러한 활동이 취업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 전공 공통 프레임 워크

그동안 대학은 각 전공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만을 강조해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을 일관성 있게 투영하지 못했다. 서울여자대학교는 국내 최초로 33개 전공 졸업생 모두를 일정수준 이상의 'PLUS형 인재'로 만들기 위한 '전공교육과정 공통 프레임워크'를 구축, 시행하고 있다.



### 전교생을 모두 'PLUS형' 인재로 만드는 교육

전공교육과정 공통 프레임워크는 전공 적응 및 진로 지도, 프로젝트 기반의 실무형 교육, 특별 교육 프로그램, 학제 간 교육 다변화, 글로벌 역량 강화 등 5개 영역에 걸쳐 총 18개의 세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입학성 유형별로 맞춤형 진입지도'를 실시하고, 33개 모든 전공에서 271개의 진로 로드맵을 제공한다. 모든 전공의 1학년 교과과정에는 전공탐색, 진로탐색 과목을 개설해 빠른

전공 적응과 진로 설정을 돕는다. 또한 정규 전공과목 외에도 우수한 학생이나 특정 분야에 관심있는 학생에게 방학 기간을 이용해 전공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전공 집중 교육과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2012년 겨울방학에는 프로젝트형 진입 함양, 회계 실무 강화, 화이트 해커 등 7개 교육 과정을 개설해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다. 올해 여름방학에는 4주간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며 공부하는 지속형 전공집중교육도 진행했다. 전공 공통 프레임워크를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은 전공별로 제시한

표준화된 로드맵을 기반으로 진로 결정을 보다 빨리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전공교육과정도 적기에 준비할 수 있다. 또한 신입생은 물론 복학생, 재입학생, 편입생, 외국인 학생까지 다양한 학생별 상황을 감안해 별도의 진입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전체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상향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학제 공동체성을 증진시키고 전공별·개인별 교육에 따른 편차를 줄이는데도 기여한다.

## 서비스-러닝

봉사와 실천은 서울여자대학교가 건학 당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다. 서울여자대학교는 전문 지식과 봉사를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방법인 '서비스-러닝'을 개발해 실시하고 있다.



### 대학 교육의 새 패러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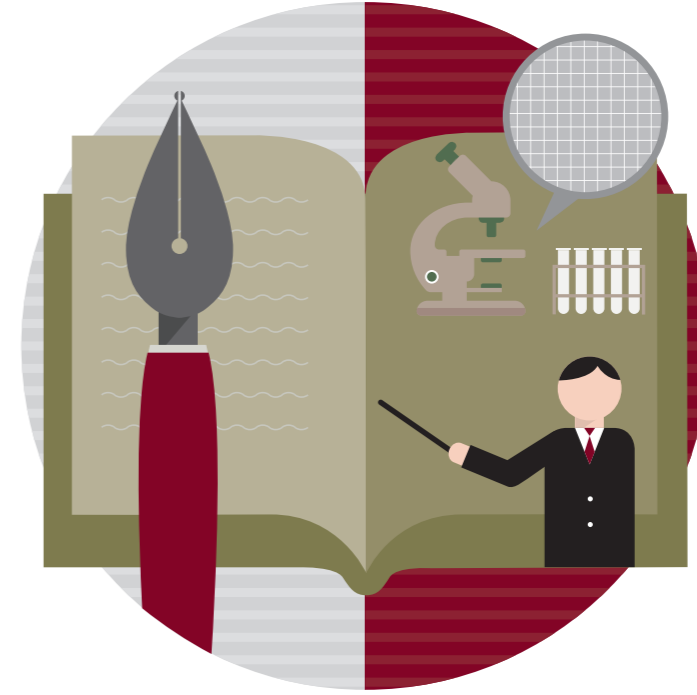
서비스-러닝은 일반적인 사회봉사와는 달리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강의실에서 배운 내용을 소외된 계층이나 지역사회와 나누는 일종의 '지식 나눔'이다. 예를들어 정보보호학과의 경우 지역의 NGO나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사용 중인 컴퓨터에 악성 코드가 없는지를 점검해준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현장에서 접했을 때는 수업에서 교수와 함께 해법을 모색한다. 강의실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 응용함으로써 전공 관련 지식을 살아 있는 지식으로 더욱 확실하게 체득하는 효과도 있다. 이처럼 서비스-러닝은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돕는 활동이라기보다 또다른 형태의 배움이다. '서비스-러닝'은 봉사를 통해 배우고, 섬기기 위해 배운다는 뜻이며 '는 봉사와 배움을 연결하는 성찰과 피드백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글로벌 서비스-러닝'도 실시하고 있다. 2012년에는 파견할 국가에서 요청하는 전공 과목의 학생들을 선발해 베트남의 한 중학교에서 컴퓨터를

가르쳤고, 인도와 필리핀에서는 각각 현지 아이들의 교육과 환경 개선 작업 등을 진행했다. 앞으로 파견 국가를 확대해 학생들을 글로벌한 환경에 노출시켜 관련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비스-러닝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된 것으로 운영 노하우에 대한 자료 집을 발간하는 등 타 대학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현재 매 학기 50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의 노력으로 제후를 맺은 협력기관들이 많아 더 많은 프로그램이 신설될 예정이다.

##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

서울여자대학교는 '잘 가르치기 위한' 교수들의 연구 결과를 교육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잘 가르치기 위한 남다른 노력

교수 지원 프로그램은 '티칭 커뮤니티'로 운영된다. 티칭 커뮤니티에는 교수 멘토링, 교수법 연구회, SIG (Special Interest Group)가 있다. 교수 멘토링은 선임 교수와 후임 교수가 멘토-멘티가 되어 교수법에 대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멘토는 재직 기간 6년 이상, 멘티는 5년 이하로 활동 기간 내 서로 1회 이상 수업을 참관하고 4회 이상 면담하며 서로 조언을 주고받는다. '교수법 연구회'는

동일학과 교수 그룹이나 타학과 교수와 연계된 그룹으로 운영한다. 연구회는 전공별 교과목의 질을 개선하고, 학제간 협력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SIG는 교수 학습센터에서 지정하는 주제로 연구 활동을 진행하는데, 최근 운영된 주제는 교수법 관련 독서 모임이다. 또한 교수 직급별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신입교수 뿐 아니라 부교수 이상 교수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워크숍이나 단기 집중

과정을 통해 학생 상담 기법, 수업방법, 티칭 포트폴리오 및 강의계획서 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교수학습센터는 장기적으로 교수-학습 환경에 가장 적합한 블렌디드 러닝을 확산하기 위해 교과목을 찾아 설계하고 지원한다. 자체 개발한 블렌디드 러닝 운영모형을 기반으로 온라인 강의와 프로젝트 중심 학습방법을 결합한 교과목을 개발했고, 달라진 수업 환경에 맞게 강의계획서 동영상 콘텐츠를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SWCD 아카데미 인턴십

서울여자대학교는 SWCD 아카데미를 개설, 전공과 연계된 인턴십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특히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턴십 참여 기업은 2011년에 비해 2012년에는 33%가 증가했고 인턴십 수료 학생도 40%나 늘었다.



### 취업으로 가는 지름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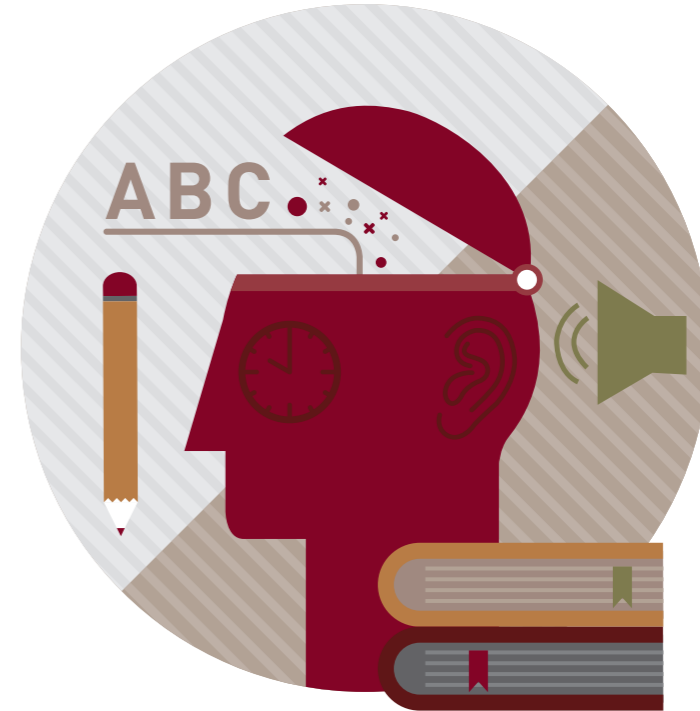
서울여자대학교는 학생들이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신규로 개발해 실습학생 업무 참여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실습 전과 실습 기간 중에도 기업을 방문해 체계적인 실습 계획 수립과 업무 내용 점검, 실습 학생 관리 등을 통해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고 있다. 또한 실습생을 위한 사전 교육을 기업 맞춤형

직무 교육과 개인별 역량에 맞는 온라인 강의로 전환하여 운영함으로써 실무 적응력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성공적으로 취업한 해당 분야에 재직하고 있는 선배를 초청하여 대화 시간을 가짐으로써 업무에 대한 상세한 피드백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인턴십 참여 이후 직무 지식과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업 교육을 연계 운영하고 잡 매니저(job manager)를 통해 개인별 취업 컨설팅을 진행해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 그 결과 SWCD 아카데미 인턴십 참여 학생의 취업률은 62.2%로, 학생들이 취업

관문을 뚫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가고 있다.이밖에도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공마다 기업 요구형 교과목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 글로벌 의사소통 능력

전 세계가 가깝게 교류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글로벌 소통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서울여자대학교는 학생들의 글로벌 의사소통 능력 계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소통 능력은 'PLUS형' 인재의 핵심 역량

글로벌 의사소통 능력의 기본은 언어. 특히 영어 교육에 주력한다. 서울여자대학교의 독특한 영어 교육 시스템인 스웰<sup>SWELL</sup> 외에도 공인 토익시험과 동일한 환경을 제공해 실제 토익 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 주기 위한 교내 토익특별시험, 영어 프레젠테이션 대회 등 재학생들이 자주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영어 공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공인 토익 목표 점수를

달성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도 지급한다. 특히 영어에 취약한 학생들을 위해 자체 개발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수업에 활용하여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글로벌 의사소통 능력 계발 프로그램에는 독서 교육도 포함된다. 교수와 학생이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사제동행 독서 프로그램'은 서울여자대학교의 독특한 프로그램.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합의하고 설득하는 법을 배운다. '서울여자대학교 권장 도서 100선'과 '교수 추천도서 27선'을 활용하는 교양 독서대회도

해마다 열고,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과 특강도 학기중과 방학중 계속 진행한다. 이처럼 서울여자대학교는 외국어 실력 외에도 깊이 있는 독서와 글쓰기 능력을 강조한다. 말과 글, 행동으로 자신의 의사를 적절히 표현하고 전달하며 타인의 의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소통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들은 재학 기간 동안 학교의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수하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를 무대로 뚫 수 있는 경쟁력을 기를 수 있다.



다른 영어 교육

## 생활과 문화로 배우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 SWELL®

서울여자대학교는 설립 초기부터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양 교육을 실시했다. 1970년대 초반, 이미 시청각교육실을 마련해 영어 청취 능력을 높이는 등 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을 시행했고, 국내 최초의 영어전문교실(LAB)을 만들어 체험 중심의 어학수업을 했다. 차곡차곡 쌓아올린 영어교육의 역량은 1995년 국내 최초의 몰입형 영어교육 프로그램인 스웰로 이어졌다.

스웰은 실생활에서 원어민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Business분야에서 실질적인 업무 수행과 학술 부문에서 최고수준의 영어구사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총 8단계로 이뤄진 교과과정은 최종 단계인 8단계 License Preparation(LP) 과정을 마치면 논문 제출 및 구두 발표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인증서를 수여한다. 교육에서 인증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스웰 프로그램은 서울여자대학교 재학생에게는 영어 경쟁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다른 학교 학생이나 일반인에게는 완성도 높은 외국어 교육과정으로 호평받고 있다.

7:00  
-  
기상

8:00  
-  
Oral Communication Skills 회화  
Reading & Discussion 독해와 토론  
Listening 청취  
Writing 작문



### 합숙을 통해 영어를 집중적으로 익힌다 방학 중 SWELL

방학 기간에는 6주간 함께 생활하며 24시간 영어를 쓰는 강도 높은 합숙 훈련이 진행된다. 생활영어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교양강좌를 영어로 배우는 CBI<sup>Content-Based Instruction</sup> 수업도 개설되어 있다.

English Only, Let's Speak English Together!

스웰이 시작되는 순간 곳곳에서 이 문구를 발견할 수 있다. 6주 동안 영어에 진지하게 몰입할 수 있도록 합숙생활 동안 모든 참가자들에게 일정한 규율을 적용한다. 핸드폰 사용은 하루에 30분만 가능하고, 한국어를 쓰면 벌점이 주어진다.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감탄사까지 영어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처음에는 이러한 환경들이 다소 낯설 수 있지만,

규칙에 적응이 되면 어느덧 영어로 생활하고,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꿈을 꾸다.

아침 7시 기상,  
하루 16시간 영어와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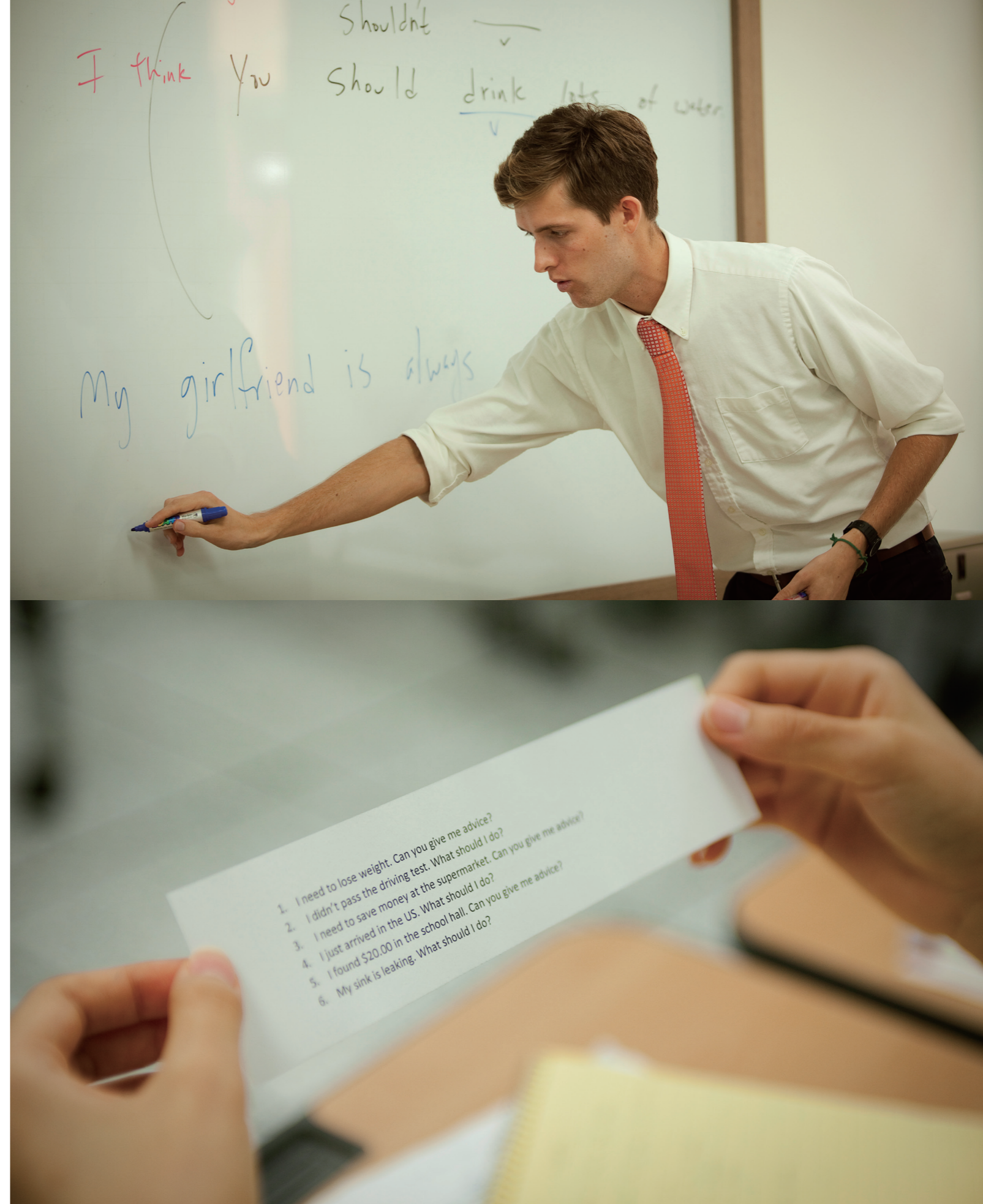
본격적인 수업은 오전 8시부터다. 스웰에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4가지 언어영역을 골고루 가르친다.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한 Oral Communication Skills(OCS), 쓰기 능력을 배우는 Writing 수업이 있다. Listening 수업은 한국인 선생님이나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 선생님이 주로 수업을 진행한다. Reading & Discussion(R&D)은 토론수업으로 반마다 수업방식이 다르다. 오후에는 토익과 토플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수업을 개설해 놓는다. 준비하는 시험 종류에 따라 반을 선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교양강좌를 영어로 배우는 Content-Based Instruction(CBI) 수업이 진행된다. 연극, 음악창작, 글짓기, 미국대 중문화, 영화의 이해, 댄스: 문화와 사회 등의 과목이 개설되며, 과목은 학기마다 변경된다. 스웰에서는 전 수강생의 기초영어실력을 다지기 위해 Self-Study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Homeroom 시간에는 외국인 담임교수제로 개별적인 집중지도를 펼친다. 하루의 마무리는 단어시험으로 한다. 그날 배운 것들을 복습하는 시간으로 이 테스트를 마쳐야 하루 16시간의 학습이 마무리된다.

**특별활동, 영어로 놀다**

네이티브는 쉬운 영어로 말한다. 실제생활에서는 길고 복잡한 회화문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양한 특별 활동과 문화 이벤트는 일상 영어와 마주하는 시간이다. 춤, 스포츠 등의 과외활동을 즐기며 어느덧 기초적인 생활영어를 자신감 있게 구사하는 수준에 올라서게 된다. Class Presentation(반별 장기 자랑), English Speech Contest(영어 말하기 대회), Pop Festival(영어 노래 부르기 대회), Swell Bell(영어퀴즈대회), Mid-term Party, Field Trip(현장 학습), Sports(스포츠) 등의 Special Activity(특별 활동)는 스웰 고유의 문화행사로 자리 잡아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8단계로 레벨이 나뉘어 있다**

스웰 합숙에 들어가기 전 Listening, Reading Comprehension, Interview, Writing 등 4가지의 Level Placement Test 를 통해서 7단계로 반을 편성한다. 스웰러들은 레벨테스트를 통해 단계적으로 영어를 공부하면서 자신의 수준을 진단하고, 현재의 영어실력을 고려한 공부 목표와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최종 8단계는 국제적 인재 양성을 위한 단계로 영어 논문 작성 및 PPT로 진행되는 영어 프리젠테이션을 배운다. 해외 교환학생, 해외-대기업 취업, 해외대학(원) 진학준비를 위한 국내 최고 수준의 과정이다. 5 단계부터는 교환학생 선발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17:00  
-  
저녁

18:00  
-  
Study Hall /  
Homeroom

19:00  
-  
Daily Test



20:30  
-  
Night Roll 점심



합숙이 부담된다면 통학한다

바쁜 방학, 합숙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오전 시간을 활용하여 스웰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통학형 스웰이 2011년부터 시작되었다. 통학형 스웰은 스웰의 알짜배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기 중 스웰과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 방학 중 6주간 8시부터 12시까지 Oral Communication Skills(OCS), Writing, Listening, 그리고 Reading & Discussion(R&D)의 핵심과목을 배운다.

아침과 공강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학기 중 SWELL

학과 공부와 병행해야 하는 학기 중에는 아침이나 공강 시간을 이용, 매주 14시간씩 12주간 말하기·듣기·독해·작문을 공부한다. 타교생 및 일반인에게도 문이 열려있어 집중적 영어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학습부문별 특화된 수업으로

영어 경쟁력을 키우다

학기 중에는 본격적인 1교시를 시작하기 전 아침시간이나 공강시간을 활용해 스웰 수업을 한다. 학기 중 스웰은 시험기간을 제외하고, 매주 14시간씩 12주간 진행된다. 수업은 Oral Communication Skills(OCS), Writing, Listening, 그리고 토론식 수업인 Reading & Discussion(R&D)이 있다. 학기 중 종합 반에는 공강시간을 활용하여 영어로 된 영상자료를 시청하는 Multi-Media Lab(MML)을 개설하고 있다.

선택의 폭 넓은 풍성한 단과강좌

학기 중 스웰에는 영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단과 강좌가 마련되어 있다. 토익, 토플 등의 공인 영어 시험 준비를 비롯해 교환학생이나 취업·면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강의를 한다. 공연, 뉴스 청취, 영어 토론 등 생생한 이슈를 중심으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과목도 마련하고 있다. 일반인도 수강할 수 있으며, 서울여대생에게는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영어뿐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 학기 중 SWELL 수업구성

수업구성	수업시간	비고
Core Class		
· Oral Communication Skills(OCS)	1교시 7:15 - 8:00	· 월 ~ 금 수업
· Listening	2교시 8:05 - 8:50	· 1교시 2교시 모두 필수 수강
· Writing		
Reading & Discussion	주2회	· 본인의 공강시간 중 선택하며 1회 50분 수업 · 월수/화목/수금 중 택1하여 비슷한 레벨의 학생과 고정된 시간에 듣는 필수 수업
Multi-Media Lab	총 22시간(1,320분)	· 본인의 공강시간 중 원하는 때, 원하는 시간만큼 들을 수 있으나, 총 1,320분 필수

● 학기 중 SWELL 영어 단과강좌 (2013년 가을 학기)

- TOEIC 중급 'Intermediate TOEIC'
- TOEIC Speaking
- TOEFL 초중급 'Pre-Intermediate TOEFL'
- Media English
- 집중영어회화 (Intensive OCS)

다른 외국어도 공부할 수 있다. 계절별로 강의가 개설되며, 매일 2시간씩 총 8주 동안 외국어 집중 강의를 듣는다. 학기 중과 방학 중 모두 수업을 개설한다.

일대일 수업으로 실력을 향상시키는 SWELL Mentoring Center

서울여자대학교는 일대일 수업이 가능한 SWELL Mentoring Center를 운영한다. 학기 중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신청하여 멘토링을 받는 개별지도 프로그램으로, 영작문, 발음교정, 회화 및 영어면접 준비, 영문이력서·자기소개서 첨삭 등 1:1 맞춤형 학습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기적 수업이 아니라 1회씩 신청하는 방식으로 본교생뿐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영어, 인성과 결합하다 Bahrom-SWELL

서울여자대학교를 대표하는 두 프로그램이 만났다. 스웰 프로그램과 바롬인성교육을 접목하여 '바롬-스웰'이라는 융합적 교과과정들을 만든 것. 바롬-스웰은 학생들이 인성과 외국어 능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모든 서울여대인들이 스웰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바롬-스웰 프로그램은 공동체 교육인 바롬인성교육과 영어몰입형 교육 프로그램인 스웰을 연계한 것으로 2011학년도부터 시작되었다. 글로벌 시대에 세계와 소통하면서도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만의 독창적인 두 프로그램인 '바롬인성교육'과 '스웰'을 합친 것.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스웰의 영어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신입생이 참여하는 바롬 I 교육 및 2학년 필수과목인 바롬 II 안에 바롬-스웰 프로그램을 배치했다. 이에 따라 바롬인성교육의 합숙 기간 중 매일 아침 원어민 강사와 회화수업을 하고 온라인 학습도 병행한다. 서울여대생이라면 재학기간 중 최소한 5주 이상 스웰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영어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셈이다.

## “BIP 덕분에 한국 문화 사절단 역할 톡톡히 했어요”



바롬국제프로그램(BIP) 체험이경  
미 학생 (화학과 08)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교환 학생을 가기 전 BIP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외국인 친구와 1:1로 함께 생활하는데, 저는 운 좋게 BIP를 통해 교환학생으로 파견될 미국 학교에서 온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는 강의를 듣고 체험 학습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파견된 미국 학교에는 국제학생이 별로 없었는데, 마침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얻어 친구들이 한국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과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볼 때 한국을 제대로 소개할 수 있었어요.

작년에 서울여자대학교와 교환학생 협정 프로그램을 맺은 미국 세다 크레스트 칼리지

Cedar Crest College

로 교환학생을 다녀왔는데요. 교환학생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공부하는 게 꿈이었어요. 대학에 입학해 교환학생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영어 성적이 중요한 선발 기준이라고 해서 열심히 토플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좋은 점수를 얻어 교환학생에 선발됐어요. 3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가 3~4학년 과정의 수업을 들었어요. 미리 영어 공부를 많이 하고 간 덕분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세다 크레스트 칼리지 Cedar Crest College는 어떤 학교인가요?

펜실베이니아주 앨런타운이라는 작은 도시에 자리잡고 있어요. 전교생이 8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규모라 가족같은 분위기예요. 당시 저는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온 2기 교환학생이었는데, 국제학생이 거의 없어서 본의 아니게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교수님이 무척 잘해 주셨고, 학생들도 모두 친절했어요. 제가 있던 동네는 한국인이 없어 영어만 써야 했어요. 덕분에 영어가 빨리 늘었어요.

전공 수업은 어렵지 않았나요?

첫 번째 학기는 잘 보냈고, 두 번째 학기는 실험이 많아서 힘들었어요. 너무 어려워서 '수강을 포기할까'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때마다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었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고 수업 시간은 물론 끝난 후에도 일일이 다시

*act different*

알려주곤 했지요. 이 친구들 덕분에 공부하는 게 즐거웠어요. 요즘도 자주 연락해요.

수업 내용 중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교양과목 중 환경 문제를 깊이있게 다루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학생들로 하여금 현재 전 지구촌의 문제인 환경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다각적이고 진지한 고민을 하게 하는 거죠. 현대 사회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환학생으로 가기 전 수강한 서울여자대학교 BIP는 현지에서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BIP는 외국인 친구와 1:1로 연결돼 한 달 동안 함께 생활하잖아요. 저는 운 좋게도 세다 크레스트 칼리지에서 온 친구랑 룸메이트가 되었어요. 그 친구와 함께 한국의 전통 문화와 역사를 배우는 강의를 듣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한국인인 저도 평소에 잘 모르고 있던 내용들이 많아 무척 흥미로웠어요.

특히 그 내용들을 영어로 배운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예요. 미국에 있을 때 친구들이나 교수님이 한국에 관해 이것저것 물어보곤 했는데 그때마다 아주 잘 설명해 주었거든요. 기숙사에서 친구들에게 한국 음식을 만들어 주기도 했어요. 잡채, 떡볶이 같은 간단한 것들이었지만 한국 식당 하나 없는 곳에서 처음 접하는 한국 음식을 다들 맛있게 먹어 기분이 좋았어요. 프로그램에 참여해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 대해 잘 알게 된 것도 소득이지만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제대로 소개할 수 있어

좋았어요. BIP 덕을 톡톡히 보았지요.

BIP가 영어 실력 늘리는데도 도움이 되었나요?

물론이죠. 그전에는 영어 공부를 해도 외국인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제 회화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BIP에 참여하면서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어요. 저는 이 프로그램이 정말 좋아서 올해는 스태프로 참여했습니다. 작년에 미국에 있을 때 BIP 스태프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얼른 지원했어요. 작년보다 올해 외국인 학생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 뿌듯했어요.

교환학생을 염두에 두고 있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덕분에 얻은 게 많아요. 영어 실력을 보다 탄탄하게 다지게 되었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그만큼 넓어졌지요. 졸업 후에는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도 생겼고요.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 처해도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제일 큰 소득이에요. 서울여자대학교는 BIP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 외국인 친구들과 사귀며 영어 실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문화 사절단 역할까지 할 수 있으니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제교류 프로그램

세계가 우리 교실이다

### 글로벌 프로그램

경험은 생각을 넓힌다. 서울여자대학교는 학생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넓게 보는 혜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2013년 7월에는 파리 13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해 학생교류 및 연구자 교류,

공동 연구 프로젝트 전개, 박사논문과 석사논문 공동 지도 등에 합의했다. 특히 협력의 첫 단계로, 매학기 대학에 서 6명씩의 학생을 1학기 또는 1년 동안 교환학생 자격으로 교류한다.



바롬단기문화연수프로그램(BSA: Bahrom Summer Abroad)

# 10<sup>박</sup> 11<sup>일</sup>

서로 다른 문화 읽기

한국과 일본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고대 이래 교류를 이어왔다. 서로 다투기도 했지만 사람과 문화를 주고받는 일도 많았다. 서울여자대학교는 일본의 협력대학과 14년째 문화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BSA는 일본의 소화여자대학교(도쿄), 동지사여자대학교(교토), 고베친화여자대학교(고베)와 진행한다. 매년 6월에는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일본의 대학을 방문하고, 8월에는 일본 학생이 서울여자대학교를 방문한다. 참여 학생들은 문화학습, 유적지 탐방, 홈스테이 등을 통해 일본과 한국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접하게 된다. 향후 프랑스, 독일 등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바롬국제프로그램(BIP: Bahrom International Program)

# 28<sup>일</sup>

같이 만나는 또 다른 한국

외국 협력대학의 학생들과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며 한국학을 공부한다. BIP는 외국학생들에게는 한국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고, 한국 학생들에게는 외국에 가지 않고도 국제감각을 익힐 기회다. 서울여자대학교 학생과 외국학생이 한팀이 되어 우리나라를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고, 설명하며, 함께 토론한다. 오전에는 한국의 역사, 정치, 사상, 예술, 언어, 경제, 문화에 관한 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다양한 문화체험 및 유적지 탐방 등의 체험학습을 한다. 이외에도 파티, 기념행사, 보고서 작성 등의 알찬 내용으로 구성된다. 가을학기 영어권 교환학생 대상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 91<sup>개화</sup>

두드리면 열리는 외국 대학의 강의실

교환학생은 대학생이라면 한번쯤 꿈꾸는 로망이다. 외국의 언어와 대학문화에 적응하며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다. 정보를 찾고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잘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로망을 실현할 수 있다. 2학기 이상을 수강하고, 해당국가의 언어능력을 가져야 하며 총 성적 평점이 3.0이 넘어야 교환학생에 지원할 자격이 생긴다. 서울여자대학교는 영어권, 일어권, 중국어권, 불어권, 독어권, 기타언어권(러시아,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으로 나누어 학생을 교환한다. 일괄적으로 1년 동안 교환학생을 나가게 되는데, 미국의 Queen's University 교환학생 프로그램만 한 학기로 운영된다. 교환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서울여자대학교 학점으로 인정하며, 서울여자대학교 학비로 외국의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다.

UBC/IT 파견학생 프로그램

# 1<sup>학기</sup>

미국과 캐나다에서의 학교생활과 직장생활

파견학생 프로그램은 고정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하는 과정이다. 6~8주간의 인턴십이 포함되어 있어, 외국대학의 수업을 경험할 뿐 아니라 직장생활도 경험할 수 있다. 최소한의 어학능력(토익 700점 이상)을 갖추었다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라 영어실력이 부족하다고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미국 일리노이 공과대학(ITT)에서 진행되는 6개월 과정의 IT전문교육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UBC)의 Global Business, Global Arts 5개월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파견생에게는 서울여자대학교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단, 외국대학 프로그램 참가비와 생활비는 참가자 부담)

복수학위 프로그램

# 2<sup>개의 학위</sup>

2년은 우리나라에서, 2년은 미국에서

4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달라진다. 서울여자대학교와 인디애나-퍼듀대학 간에 진행되는 복수학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두 개의 졸업장을 받게 된다. 서울여자대학교에서 1, 2학년을 보내고, 인디애나-퍼듀 대학에서 3, 4학년을 보내면서 각각의 교과과정을 이수한 후 두 대학의 학위를 동시에 받는 것. 경영학과나 컴퓨터학과 학생으로 4학기 이상을 이수했다면 도전할 수 있다. 인디애나-퍼듀 대학교는 인디애나 대학과 퍼듀 대학이 공동으로 설립한 주립대학으로 인디애나 포트웨인에 위치해 있다. 인디애나 북부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대학으로 컴퓨터학과는 졸업 후 퍼듀 대학의 졸업장을, 경영학과는 인디애나 대학의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 “세계문화체험과 봉사는 시야가 넓어지고 마음은 따뜻해지는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세계문화체험과 봉사이경란 학생  
(생명환경공학과 09)

처음 세계문화체험과 봉사 수업을 신청할 때 당연히 정해진 일정이 있고 그것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수업을 시작하고 보니 정해진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스스로 프로그램을 짜고, 후원물품도 기업과 직접 접촉해 후원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학점을 따자는 마음이었지만 모든 과정이 지난 지금은 세상과 사람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29일까지 세계문화체험과 봉사 과정의 하나로 태국에 다녀왔는데요. 어떤 활동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생활한 곳은 방콕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칸자나부리라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현지 대학 탐방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현지 문화 체험도 했어요. 저희가 머물렀던 RMUTT 대학은 규모가 무척 크고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어 깜짝 놀랐어요.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서울대, 연세대와도 교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0일 동안 학교 기숙사에 머물며 현지에서 만난 버디들과 함께 대학 곳곳을 구경하고 수업도 참관했어요. 이후에는 고아원, 노인 요양시설 등을 돌며 봉사활동을 했어요.

봉사활동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시내에서 세 시간 정도 떨어진 산골마을에 오두막처럼 생긴 고아원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탈 만들기, 한복 종이 접기, 염서에 그림 그리기, 봉숭아 물들이기 같은 프로그램을 짜 3일 동안 아이들과 즐겁게 놀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들의

요양원인 '엘더 무먼스 하우스' <sup>Elder</sup>

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인 새천년체조도 가르쳐 드리고, 한복도 입혀 드리고, 매니큐어도 칠해드렸는데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고아원 아이들에서부터 또래인 버디 친구들, 할머니들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세대를 만날 수 있어 좋았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고아원에서 만난 아이들, 요양원에서 만난

act different

할머니들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리고 이건 힘들었던 기억인데, 고아원에서 봉사 활동을 할 때 마땅한 숙소가 없어서 근처에 있는 전통가옥에서 잠을 잤어요. 문도 없고, 사방이 그냥 뽕 뚫린 구조였죠. 개미가 이불을 기어다니고, 천장에는 도마뱀이 붙어 있고, 엄청난 크기의 나방이 휘젓고 다니니 첫날은 다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런데 그것도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편하게 여행을 했다면 전혀 하지 못했을 귀한 경험을 한 거죠. 3일 정도 방콕에서 여행할 시간이 주어져 시내와 유적지를 돌아보았는데 빌딩이 많고 복잡한 것이 서울과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칸자나부리에서의 시간이 훨씬 좋았어요.

세계문화체험과 봉사의 경우 전체 일정을 팀원들이 직접 짜고, 현지에서의 진행도 전적으로 학생들의 몫이라고 들었습니다.

처음 세계문화체험과 봉사 과정을 신청할 때, 당연히 정해진 일정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정해진 것은 출국일과 귀국일, 그리고 이 프로그램 관계자들의 연락처뿐이에요. 태국팀은 모두 10명이었는데 제가 제일 학번이 높아 팀장이 되었어요. 리더의 자리에 서다보니 어깨가 무겁더라고요. 서툰 영어지만 수시로 관계자들과 이메일로 일정을 주고 받고, 프로그램을 짜고, 아이들에게 줄 문구류 같은 후원물품도 기업들과 직접 접촉해 마련했어요. 처음 해 보는 일이라 쉽지 않았고 실수도 그만큼 많았지만 돌아보면 그 과정 자체가 공부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계문화체험과 봉사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세상과 사람에 대한 공부'라고 말하고 싶어요. 처음에 이 과목을 신청할 때는 그저 학점이나 따자는 생각이었어요. 졸업을 앞두고, 나름대로 생활을 잘해 왔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아귀가 잘 맞지 않는 그런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가볍게 생각했는데 결코 간단치 않았고, 그러면서 많은 것을 얻었어요. 평소 리더십이 있다는 생각을 별로 해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팀장을 맡게 되면서 제 역량 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확인하는 계기도 되었고요. 물론 아쉬움도 많지만, 4년간의 대학 생활 중 마지막 퍼즐 조각을 제대로 잘 맞춘 것 같아 보람을 느껴요.

이 프로그램을 궁금해하는 친구들 혹은 후배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친구들에게 이 프로그램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고 다녀요. 좋은 경험을 하면서 학점도 받을 수 있다고요.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언어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이니깐요. 또래 대학생들과 교류하고 봉사도 하면서 내가 가진 능력을 얼마나 베풀 수 있는지, 내 역량은 어디까지인지, 두루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도 깰 수 있어요. 서울여자대학교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저는 세계문화체험과 봉사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 봉사 프로그램

나눔으로 배운다



이론적 지식의 실체를 훈련할 기회는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에 있다. 서울여자대학교는 지역사회를 포함한 세계의 이웃과 함께 행동하고, 경험하며 실천적 지식을 갖춘 리더를 기른다.

2013년 여름 '세계문화체험과 봉사' 프랑스팀은 'Emmaüs'라는 빈민구호 공동체에서 버린 물건을 되팔 수 있는 물건으로 바꾸는 일을 했다.

### 세계문화체험과 봉사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려고 왔는데 오히려 더 많은 걸 받고, 배웠다'고 고백한다. '세계문화체험과 봉사' 참가자들도 마찬가지다. 현지 문화체험을 위한 여행까지 더해지니 학생들이 느끼는 만족과 감동은 기존의 봉사활동보다 더 크다. '세계문화체험과 봉사'는 3주간 해외 각국에서 문화교류와 봉사활동을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다. 첫 주는 해외 교류대학교에서 현지학생들과 워크숍 및 세미나를 갖고, 둘째 주에는 현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봉사와 복지기관 자원봉사를 진행한다. 마지막 주에는 현지 전통과 문화를 체험하는 활동을 한다. 2004년 인도, 홍콩 2개국 파견을 시작으로 현재는 13개국 이상으로 학생들을 파견하고 있다.

기아대책기구를 통해 필리핀으로 떠난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들은 현지 어린이들에게 미술, 음악, 체육, 놀이 등의 교육 봉사를 진행했다.

### 해외봉사활동

서울여자대학교는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와 만나는 기회를 넓힌다. 세계인의 꿈과 희망을 보며, 학생들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를 아우르는 지구촌 리더로 성장한다. 대학사회봉사 협의회, 국제기아대책기구, 국제워크캠프와 손을 잡고 글로벌 인성을 키울 소중한 경험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동남아시아에서 아프리카까지 세계 각국에서 국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른 나라의 어려운 사정을 돌보는 뜻깊은 경험을 하게 된다. 여름, 겨울 방학 중에 진행되고, 지급조건을 갖춘 학생들에게는 50만원에서 참가비의 50%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참가 프로그램에 따라 사회봉사 1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 | S-L 수강 학생들은 아모레퍼시픽에서 주관하는 2012 핑크 리본 마라톤에 참여해, 'PINK BLOSSOM'을 주제로 타악기 연주를 펼쳤다.

### 서비스-러닝 Service-Learning

서비스-러닝은 학생들이 강의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봉사활동 현장에 적용하며 배우는 것이다. 수업시간에 배운 지식과 연결하여 봉사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이를 실제 지역사회 기관에서 실천하며, 학습한다. 서비스-러닝을 진행하는 동안 학생들은 성찰일지를 작성한다. 학습과정과 결과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성찰일지에 기록하면서 자신의 성장 과정을 스스로 평가하게 된다. 지식과 결합된 봉사는 실제적인 체험과 풍부한 사례로 학습효과를 높여주며, 학생들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 Global S-L S-L을 한번 이상 수료해야 신청할 수 있다. 국제 자원활동 현장에서 환경, 인권, 문화다양성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배운 지식을 활용한다. 여름, 겨울방학에 2~4주간 진행되며, 다음 학기에 1학점이 인정된다.
- S-L Bridge 심화과정으로 직전 학기 S-L을 방학 중 지속적으로 연장하며 활동한다. 다음 학기에 1학점이 인정된다.



3회 에코 페스티벌에서는 버려진 현수막으로 파우치 만들기 행사와 면 생리대 공동구매, 실천단이 직접 재배한 허브티 맛보기 등의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 에코캠퍼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문제가 심각하다. 한 공간에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의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대학의 경우도 환경문제에 예외일 수 없다. 서울여자대학교는 2009년 기후변화센터와 함께 'Stop CO<sub>2</sub> 선포식'을 개최하고 캠퍼스를 친환경적으로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을 굳혔다. 2010년부터는 에코캠퍼스 실천단을 모집하고, 교내에서 친환경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에코캠퍼스 실천단은 학생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7~8개의 팀을 이루어 친환경 활동을 스스로 발굴하고 실천한다. 팀마다 담당교수가 지정되어 이들의 활동을 코치한다. 빈그릇 운동, 텃밭 가꾸기, 폐현수막 활용, 머그컵 사용 독려 등 다양한 활동을 학내에서 실천하고 있으며, 매 학기 에코 페스티벌을 열어 학우 전체가 친환경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 Emmaüs

# eco-campus

## “창업교육센터에서 받은 소통 능력에 관한 코칭이 큰 힘이 됐어요”



양모리학교 대표  
손미희 동문 (경영학과 07)

양모리 학교는 경남 남해에 바다와 숲을 끼고 있는 1만여 평의 땅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된 덕분에 올해 4월 문을 열었지요. 창업 과정은 녹록지 않았습니니다.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많은데, 경험이 없어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창업교육센터에서 의사결정, 인맥관리 등 사업가가 갖추어야 할 소통능력에 관한 코칭을 받았고, 이것이 창업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양모리학교를 소개해 주세요.

양에 관한 모든 것을 직접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경남 남해에 자리잡고 있는데, 앞으로는 푸른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고 뒤로는 편백나무 숲이 울창한 그림같은 풍경 덕분에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어요.

양모리학교를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희 외삼촌이 양치기 개로 유명한 보더콜리 종을 훈련시키는 분이예요. 그걸 배우기 위해 외국에서 테이프와 교재를 들여와 혼자 독학을 하했어요. 스코틀랜드 양목장에서 일하며 훈련 기술을 실습하기도 했고요. 그 일을 하는 분은 국내에서 외삼촌밖에 없어요. 그런데 외삼촌이 희귀질환인 크론병을 앓고 계세요. 몸이 불편한 외삼촌에게 힘이 될 만한 일이 없을가를 고민하던 중에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부가 공동 주관하는 공모전 공고를 보게 됐어요.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시행하는 창업경진대회였는데, 거기서 우수상을 받게 되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전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요?

작년 8월에 졸업을 했는데, 마지막 학기는 거의 공모전 준비를 하면서 보냈어요. 전공이 경영학이라 사업계획서는 쓸 줄 알았고, 언제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양 전문가인 외삼촌이 옆에 있어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서울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던 언니(손지희·문헌정보학과 04)가 기획안 쓰는 일을 도와주었고요. 첫 참가라 입상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상을 받게 돼 기쁘기도 하면서 신기했어요.

*act different*

양모리학교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양모리학교에는 양과 염소를 포함해 50여 마리가 살고 있어요. 양털깎기, 양 먹이주기, 편백나무 산림욕, 그림엽서·양털카드 만들기, 양털염색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학교'지요. 모든 학습과정을 이수하면 스탬프를 찍어주고 졸업사진도 찍어요. 입장료는 어른은 5,000원, 어린이 3,000원이고요. 요즘 가족 여행지로 입소문이 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던 시골 마을 산 중턱을 관광지로 변신시킨 양모리학교는 '창조 관광'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학생에서 사업가로 변신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얼떨떨해요. 양모리학교를 준비하면서 남해군수님도 만났고, 담당 공무원들과 회의도 여러 차례 했어요. 한국관광공사 이창 사장님에게 칭찬도 받았고, 청와대에서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한 청년 창업가들을 초청하는 자리에도 초대받아 간 적도 있어요. 졸업하자마자 제게 일어난 이 변화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아요.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의 창업교육센터에도 지면을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서울여자대학교 창업교육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요?

의사결정, 인맥 관리 등 사업가가 갖추어야 할 소통 능력에 관한 코칭을 받았어요.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딛는 새내기 사회인이자 초보 창업가에게 꼭 필요한 조언들이었지요. 경험이 없다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에 우왕좌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창업교육센터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렸어요. 가장 중요하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배울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는 걸 요즘 새삼 깨닫고 있어요. 제가 창업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소통 관련 코칭을 통해 많은 도움을 얻었듯이 창업을 꿈꾸는 후배들이라면 이곳을 꼭 이용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아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 준비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잘 가르쳐 주실 겁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양모리학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싶고, 양모리학교를 키워 양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외삼촌에게 안정적인 수익원을 마련해 드리고 싶어요. 그 꿈이 이루어지면 또다른 무언가를 찾아가려고요. 아직은 미숙하지만, 그래서 넘어지는 날도 있지만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 제 모습이 가끔 대견할 때가 있어요. 창업은, 힘들지만 도전해볼 만한 일입니다.



## 창업지원 프로그램

젊은 창업자들의 꿈을 키운다

서울여자대학교는 창업교육, 예비창업자교육 그리고 창업 컨설팅 등을 통해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창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도와주고 있다.

start

step 1

창업 준비

- 창업특강
- 창업 아카데미
- 창업캠프
- 창업교과목 개설

step 2

체계적 역량 강화

- 학생 창업지원: 창업동아리 지원, 전공창업교실
- 창업컨설팅, 멘토링

special event

교내 창업 Boom-up!  
창업활성화 이벤트

- 창업경진대회
- 창창슈퍼

step 3

창업 보육

- 2013 창업보육센터 건립지원사업 선정

step 1

작은, 그러나 가능성의 시작  
창업 준비

'이상'과 '열정'을 쫓았더니 어느새 자신의 꿈에 근접해가고 있다는 청년 창업자들의 이야기에, 당신이 꿈꾸는 미래의 해답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참신한 아이템과 젊은 에너지로 무장해야 하겠지만 창업에 앞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창업 마인드다. 창업이란 무엇인지, 기업이 정신은 어떠한지 하는 것들 비롯해 마케팅, 기본적인 재무회계 지식 등에 대한 학습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여자대학교는 창업 특강을 열어 구글의 김태원 팀장, 카카오톡의 박용후 홍보이사 등 창업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 창업동기를 부여한다. 창업을 경험해 볼 수 있는 1박2일의 창업 캠프와 5일간의 창업입문지도 과정인 창업 아카데미도 열고 있다. 또한 학기 중 창업 교과목을 개설해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에게 창업실무를 가르친다.

- 창업특강
- 창업 아카데미
- 창업캠프
- 창업교과목 개설

step 2

차별화된 아이디어의 시작  
체계적 역량 강화

둘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게 안전하듯 창업 또한 인생의 상당부분을 걸어 도전하는 만큼 한 걸음걸음이 중요하다. 서울여자대학교 창업교육센터에서는 창업컨설팅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예비 창업자들이 사업계획 회계, 법률, 마케팅 등의 전문가에게 창업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멘토링도 마련하고 있는데, 1:1 또는 그룹지원의 형태로 멘토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한다. 멘토들은 각 분야별 전문가와 교수들로 구성된다. 이외에도 창업에 관심있는 학생에게 창업교육센터 입주 혜택을 준다. 센터의 부대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창업교육과 경영·기술 컨설팅과 기술·특허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여자대학교는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우수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에 적극적이다. 창업동아리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아이템 창업교육, 워크숍, 시제품 제작, 특허비 등을 제공한다. 또한 창업교육 희망학과를 대상으로 전공창업교실을 운영하는데, 이는 해당학과 교수와 학생들로 구성된 사제동행형 창업교실이다.

- 학생 창업지원 : 창업동아리 지원, 전공창업교실
- 창업컨설팅, 멘토링

30

special event

교내 창업 Boom-up!  
창업활성화 이벤트

서울여자대학교는 창업경진대회를 열어 예비 창업자의 아이디어와 사업모델을 발굴한다. 창업경진대회는 준비하고 있는 아이템을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창업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좁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소파와 책상을 접목시킨 가구 '소파에'로 1등을 수상한 박진주 학우는 5명의 친구들과 함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창창슈퍼는 창업 활성화를 돕는 행사다. 축제의 일환으로 열렸던 창창슈퍼는 창업교육센터 입주생과 입주 예정 사업팀이 아이템을 전시, 홍보하고 판매했다. 창업자들이 직접 마련한 다양한 아이템은 많은 학생들의 눈길을 끌었다.

- 창업경진대회
- 창창슈퍼

act different

step 3

창의적인 비즈니스의 시작  
창업 보육

창업준비가 된 예비창업자와 초기 벤처기업은 서울여자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자신의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최신식 시설과 공간을 제공하고, 경영·기술 컨설팅, 기술·특허 상담, 마케팅, 법률 및 노무자문 등의 사업화 지원을 함으로써 경쟁력 있고 창의적인 기업업을 양성한다. 2013년에는 창업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3억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았다. 고명우 기념관 3층을 리모델링하여 12개의 보육실을 마련했다. 앞으로 학과별 창업 인턴 실습 프로그램 활성화, 전공창업교실을 통한 창업 추진, 교육과정 체계화를 통한 문화 콘텐츠산업분야 전문인력양성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2013 창업보육센터 건립지원사업 선정
- 창업보육센터 개소

31

## “학교 프로그램의 적극적 활용이 취업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어요”



CJ푸드빌  
윤혜주 동문 (연문홍보학 전공 08)

제가 원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잡 매니저와의 상담은 적성을 발견하고 진로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잡 매니저의 지도를 통해 직업 가치관을 세워갈 수 있었어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도 열심히 참가했습니다. 1학년 때 CAP+를 시작으로 Biz실전직무교육, SWCD 아카데미, 커리어코칭, 입사서류 클리닉 등 4년 동안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해, 직업 선택에 힌트를 얻고 실제 취업에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취업상담 선생님들과 학교의 프로그램은 학생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부끄러워 말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도움을 받는다면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취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12월 CJ푸드빌에 입사해 지금은 CJ푸드월드 안에 있는 빙스 매장에서 스토어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CJ푸드빌은 빙스·투썸플레이스·뚜레쥬르·차이나팩토리·비비고 등 다양한 외식 브랜드를 가진 식품 전문 기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CJ푸드월드는 CJ푸드빌의 주요 외식 브랜드와 CJ제일제당의 다양한 식재료 매장을 한데 모은 국내 최초의 복합외식 문화공간으로 요즘 '핫 플레이스'로 각광받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제일제당센터점은 CJ푸드월드 중에서도 최대 규모예요. 또 빙스는 CJ푸드빌 브랜드 중 가장 만형 격이라 제일 크고, 대표적인 매장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스토어 매니저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사무, 고객관리, 스테프관리 등 매장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다 하고 있어요. 매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스토어 매니저의 소관이지요. 아직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재미있어요. 성격이 등글 등글한 편이라 이 일과 잘 맞는 것 같아요. 매장은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곳이라 그걸 다 받아들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여러 분야를 폭넓게 다루기 때문에 배우는 것도 많고요.

취업난이 심각한 요즘 대기업 취업은 많은 대학생들의 꿈이자 목표인데요. 취업 비결이 궁금합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자율전공 학부로 입학할 해서 전공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 덕분에 다양한 과목을 수강했고, 일찌감치 학교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졸업 때까지 CAP+, Biz실전직무교육, SWCD 아카데미, 커리어코칭, 입사서류클리닉 등 진로나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모두 참가했어요. 학교 홈페이지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새로운 정보가 없는지 살폈고, 상담도 많이 받았어요. 워 형제가 없어 마땅히 의논할 상대가 없다 보니 교수님과 잡 매니저의 지혜를 빌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상담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공강 시간에도 열마든지 할 수 있어 따로 시간 낼 필요 없고, 예약도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세어 보니 재학 기간 동안 무려 25회나 상담을 받았더라고요. 그분들의 조언이 제 적성을 찾고 진로를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학교 프로그램을 정말 다양하게 경험하셨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유익했나요?

Biz실전직무교육이 가장 좋았어요. 직무와 관련해 현업에 계신 분들이 와서 강의하고, 워크숍처럼 팀 과제도 주고, 시장조사 같은 것도 시키는 프로그램인데 실제 현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경험해볼 수 있거든요. 저는 영업과 영업관리 분야에 대한 강의를 들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스토어 매니저 업무와도 연관되지요. 또 하나, 입사지원서를 낼 무렵에 참여했던 입사서류클리닉도 아주 유익했어요. 교수님들이 실천처럼 면접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확실히 할 수 있었어요. 면접관

4명에 학생 4명이라 개인 지도나 마찬가지로 코칭을 받았죠. 기술 문제로 토론도 하고요. 이런 준비 덕분에 실제 면접장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좀더 잘할 수 있었어요.

취업을 준비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제가 가진 적성과 그에 맞는 길을 찾는 게 가장 힘들고 어려웠어요. 이걸 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일 겁니다. 흔히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구분 하라'고 하는데,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세상 경험이 많지 않은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혼자 힘으로 그걸 찾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교수님이나 잡 매니저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던 이유가 바로 거기였어요. 인생의 대선배로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주실 거라 생각했지요.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분들이 해주신 말씀을 종합하고 되새기면서 제가 정적인 일 보다는 활동적인 일을, 마케팅보다 영업이나 영업관리에 더 관심이 있고 잘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취업과 관련해 후배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 주고 싶지요?

우리 학교는 진로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정말 많아요. 학교 다닐 때 그 좋은 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친구들을 보면 참 안타까웠어요. 또 프로그램에 따라 과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걸 귀찮은 숙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로를 찾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즐기세요. 어디서든 할 수 없는 귀한 경험이기도



#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 엘리트를 육성한다

서울여자대학교는 진로탐색부터 취업 준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돕고 있다.

\* Step별 이수자에게 차기 Step Program 신청시 우선 선발권 부여

- 취업교과목
- 직업의식과 멘토링
  - 취업계획과 진로선택
  - 당신의 브랜드는 무엇인가?
  - 리더십워크숍
  - 여성리더십과 직업
  - 취업실전워크숍



## 1단계

### 진로목표 설정

우리는 왜 일할까? 행복을 위해서다. 스펙이 좋아도 삶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경험을 통해 자신의 인생에서 소중한 가치를 찾지 못한다면 취업에 성공해도 행복해질 수 없다. 진로설정은 내게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행복한 취업의 첫 단계이다. 서울여자대학교는 학생들이 자기만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1, 2학년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CAP+를 통해 자기 분석에서 시작해 진로탐색, 의사결정훈련, 입사서류 작성, 모의면접 등을 진행한다. 전문상담원과의 개별 상담도 진행한다. 1:1 상담을 통해 개인별로 적합한 취업과 진로 가이드를 제공한다. 꿈을 찾는 것에서부터 실제적인 취업의 방법까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돕는다.

- CAP+(직업지도 프로그램)

## 2단계

### 핵심역량 강화

구체적으로 진로를 정했다면, 목표하는 직무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서울여자대학교는 학생들이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취업 경쟁력을 높이도록 다양한 실전 교육을 실시한다. 인사, 교육, 영업, 마케팅, 홍보, 재무회계 직무에 지원하고 싶다면 'Biz실전직무교육'이 도움이 된다. 분야별 전문가의 강의와 참여형 교육으로 실무 역량을 미리 학습할 수 있다. '커리어 코칭'은 4개 분야에서 개설되어 있다. FAC(객실승무원), 비서, 무역, 금융과정을 매 학기 개설해 현직 전문가들을 초빙, 각 분야에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교육한다.

산업현장을 이해하는 일도 놓치지 않는다. SWCD 아카데미는 서울여자대학교만의 독특한 인턴십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회사에 나가 인턴으로 활동하며 내가 진출하고 싶은 분야를 미리 경험해 본다. 방학마다 300~400명의 학생이 지원하고 있으며, 실제 취업과 연결되는 경우도 많아 재학생에게 인기 있다.

- SWCD 아카데미
- Biz실전직무교육
- 커리어 코칭(Career Coaching)
- 취업역량강화교육

## 3단계

### 취업스킬 능력 강화

3, 4학년이 되면 실질적인 취업 준비에 들어간다. 이때가 되면 취업을 원하는 기업을 분석하고 직무분야에 맞춰 취업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서울여자대학교는 상하반기 공채를 대비해 지원분야별로 입사서류 특강과 클리닉, 모의면접 특강과 클리닉을 진행한다. 업·직종별 인사 담당자 또는 커리어 컨설턴트와 학생들을 연결시켜, 입사서류 작성과 면접 전략의 수립을 돕는다. 모의면접 클리닉은 면접형태별로 실습을 진행해 다양한 면접유형을 이해하고 각 유형별로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한다. 잡 컨설팅(Job Consulting)은 상시 컨설팅을 통해 학생과 기업을 매칭한다. 상·하반기 공채 대비 긴급 컨설팅으로 취업할 때까지 다섯 명의 잡 매니저가 맞춤형 컨설팅을 맡는다. 기업체 인사담당자, 헤드헌터 등의 경험이 풍부한 취업전문가가 진로상담부터 이력서 및 면접 클리닉, 직무 설정, 취업 알선까지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진행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취업로드맵을 만들어 원하는 곳에서 리더로 성장하는 그 순간까지 든든하게 뒷받침한다.

- 입사서류 클리닉
- Job Interview Training
- 잡 컨설팅(Job Consulting)

##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실천의 장

홍순혜 교수 (사회복지학과)  
교육복지연구센터장



사회복지가 중요한 이슈인 현대사회에서, 빈부 격차에 따른 교육 격차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교수님께서 설립한 교육복지연구센터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복지의 개념부터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의 기회·과정·결과에서 발생하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든지 사회·경제적인 형편에 상관없이 자신이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교육복지를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 2006년 연구센터를 만들었고, 양주시 회천2동의 '위스타트 마을 만들기' 사업을 7년간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실제 사례들을 통한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학교사회복지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과 교육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위스타트 마을 만들기’ 사업이란 무엇인지요?

‘위스타트(WE Start)’는 빈곤 계층 아이들에게 복지(Welfare)와 교육(Education)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 새로운 삶의 출발(Start)을 돕자는 취지로 시작된 복지 서비스입니다. 위스타트 운동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위스타트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요. 지역 내 저소득층 아동(0세~12세)들이 일정 수준의 교육·복지·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지역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저희는 양주시 회천2동의 위스타트 마을을 위탁 관리하면서 방과 후 공부방, 부모교육, 양육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로 종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진행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정부가

*act different*

주관하는 ‘드림 스타트’ 서비스가 흡수 통합될 예정입니다. 저희 센터에도 이에 따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요?

지속적인 돌봄과 관심을 받은 아이는 정서적, 심리적으로 그 이전에 비해 훨씬 안정된 상태가 됩니다. 어떤 경우는 부모에 대한 지원으로까지 확장해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등 가정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다 제공하기도 합니다. 아동의 뒤에는 반드시 부모가 있기 때문에 함께 지원하고 교육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꾸준히, 장기간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육복지 연구자로서 이런 변화를 보는 일은 큰 즐거움이자 보람입니다. 또 현장의 사례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수업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 아동·청소년들의 인성교육 부재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인데요. 서울여자대학교의 바롬인성교육과 접목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현재 바롬 인성교육연구소와 방법을 논의 중입니다. 아이들이 방과 후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모이는데 대부분 숙제나 시험 준비 같은 학습을 합니다. 저는 인성 교육 프로그램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창의성과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키워주면서 인성도 기르는 초등학생용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려고 구상하고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빈곤 계층 아이들을 돌보는 곳은 많아졌지만 전인 교육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어요. 사회 규범을 지키고, 공동체 정신을 기르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학습이 어려운 아이들에게조차 학습을 강조하니 그 아이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감에 빠집니다.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수준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해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아이들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복지와 관련해 또 어떤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2년 초부터 교육복지 현장 실무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과 연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무자인 교육복지사들의 능력 향상이 교육복지가 제대로 실현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육복지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슈퍼바이저 양성 과정을 개설해 교육복지사들을 훈련시키는 동시에 교육과정 개발연구와 효과성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학교현장에 만연해 있는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들의 인권감수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 7년간 진행해온 양주시 위스타트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과평가 또한 시급히 진행해야 할 연구과제입니다. 이 연구는 지난 7년간 이 사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은 아동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포함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는지 살펴보고 성공사례를 발굴하는 작업은 보람되고 즐거운 과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생물 자원의 확보와 관리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

이연희 교수 (생명환경공학과)(재)  
연구소재중앙센터장



교수님께서서는 미생물학 연구의 권위자로 서울여자대학교에 자리잡고 있는 국가 지정 연구소재중앙센터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비전공자들에게 소재은행이란 매우 낯설게 들립니다. 소재은행은 무엇이며, 국가 지정 연구소재중앙센터의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소재은행은 과학 연구에 필요한 소재, 즉 연구재료를 확보해서 연구자들에게 분양해주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항생제를 생산할 때 새로 생산한 항생제의 효과를 측정하려면 여러 가지 세균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야 합니다. 세균은행이 없다면 약을 합성하는 연구자가 직접 병원에 가서 세균을 분리 동정하고 보관해야 하겠지요.

연구소재지원사업은 1995년 미래창조과학부(구 교육과학기술부)의 특성화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현재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물, 융합물질 5개 분야의 36개 연구소재은행이 전국 22개 대학 내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고, 분야별 거점센터 5개소와 연구소재중앙센터가 있습니다. 연구소재중앙센터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전체 연구소재은행의 통합지원을 맡아 연구소재은행 운영의 표준화, 효율화, 글로벌화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2003년 연구소재은행 협의회 초대 회장을 맡아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어려움이 많았을 듯합니다.

연구소재은행은 개인연구를 위한 과제가 아닌데도, 당시만 해도 연구소재은행을 운영하는 은행장(교수)들의 개별 연구과제로

인식했습니다. 일반 연구과제는 자신의 논문을 생산하면 되지만 연구소재은행은 다른 연구자를 위해 본인의 연구를 희생하고 남들에게 믿을 수 있는 양질의 연구 소재를 확보하고, 연구자가 필요 할 때 연구 소재를 제공하는 인프라 사업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연구소재 은행이 운영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관련 예산증액이 선행되어야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재은행 협의체를 구성했고 초대 회장을 맡아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부처 및 재단 관계자들에게 끊임없이 소재은행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고 결국 매년 지속적으로 소재은행 수가 증가되고 예산증액이 이루어지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소재은행 네트워크를 구축해 초대 회장도 지내셨지요. 소재은행들 간의 국제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재료를 실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을 수 없는 연구재료로 실험한 결과는 어느 저널에도 실리지 못합니다. 믿을 수 있는 연구재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처음 샘플을 채취하고 처리하고 보관하고 분양하는 전 과정을 철저히 이미 준비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진행해야 합니다. 국제 협력을 통해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이미 좋은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서로 공유하고 아직 없는 가이드라인은 상호 협력해서 개발하여 더 나은 질의 연구재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한 나라가 모든 생물 자원은행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초연구를 위한 생물자원은행은 각 나라별로 더 잘할 수 있는 은행을 운영하고 상호 협력하는 것이 전 인류를 위해 도움이 되는 길입니다.

act different

교수님께서서는 2011년에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을 받으셨습니다. 같은 해, 동아일보가 선정한 '10년 뒤 한국을 빛낼 100인'에도 선정되셨는데요. 지원과 관심이 열약했던 기초과학 분야에서 여성 과학자로 사는 일은 녹록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1990년 서울여자대학교에 처음 부임했을 때 교수연구실이 없어서 학부 실험실에서 실험해야 했습니다. 이때는 우리나라 전체의 실험여건이 좋지 않았을 때입니다. 당시 일반 연구자 사업이라는 개인 기초 과제 액수가 45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5천만원~2억이 되었으니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그만큼 우리의 연구 환경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성 과학자의 삶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일하는 여성 모두의 문제일 겁니다. 저는 세 아이의 엄마로 가정 생활과 연구, 강의를 병행하기 위해 아이들을 등교시키자마자 아침 일찍 출근해서 일을 하는 방법을 택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학회와 부처 위원회, 여성과학자 단체 등 외부 활동에 부지런히 참가해서 폭넓은 경험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꿈과 계획을 들려주세요.

앞으로 정년까지는 10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선 5년 안에 가능하다면 국제 소재은행 기구를 만들고 싶고, 은퇴할 때까지 훌륭한 과학자들을 배출하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서울여자대학교가 많은 여성과학자를 배출해서 국가에 기여하고 또한 행복한 생활도 같이 할 줄 아는 사람을 키워내도록 하고 싶습니다.

## 한글은 실용과 소통, 배려의 가치를 담은 가장 우수한 문자

한재준 교수 (시각디자인학과)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한글특별위원장



올해는 한글날이 23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됨으로써 한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그간 신문, 방송, 잡지 등 여러 매체를 통해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시각디자인학과 교수로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대학교 때 정체성과 뿌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누구의 것을 흉내낸 것 같은 그림이 아니라 온전히 저만의 작품을 하고 싶었지요. 한동안 문자 추상화의 세계에 빠졌고, 그 관심이 우리 고유의 문자인 한글로 이어졌어요. 그러다 대학원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게 됐어요. 한글의 제자 원리를 밝힌 그 책을 보고 한글에 담긴 다름과 소통의 가치, 사람에 대한 배려를 깨달았어요. 지금 강조되는 디자인 철학이 이미 1400년대에 글자를 통해 구현되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 감동을 알리고 싶어 한글 디자인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한글 디자이너 1세대로, 공한체라는 새로운 활자꼴을 만들어 보급하셨는데요. 활자꼴 연구를 하게 된 이유와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활자꼴 대부분이 한글의 특성과 원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건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글 디자인이라고 하면 흔히 조형미를 생각하지만 저는 한글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글자, 그 글자 자체를 보거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한글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활자체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눈에 들어온 것이 공병우 박사님의 타자기였어요. 세벌식인 공병우 타자기는 한글의 초성, 중성, 종성을

act different

모아서 쓰는 체계와 일치합니다. 한글의 특성을 제대로 살려낸 방식이었죠. 그러나 당시의 국가 표준은 네벌식이었고, 이후 두벌식으로 바뀌는 바람에 세벌식 입력방식과 세벌식 활자꼴은 대중화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벌식 원리에 디자인 요소를 가미해 새로운 활자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공병우 박사님과 제 성을 따 공한체라 이름 붙였고요.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글자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해 주지 않아 힘들었어요. 지금도 그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저작권은 한글디자이너에게는 목숨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대로라면 언젠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한글 폰트를 사서 써야 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6개의 자모만으로 모든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고안한 교수님의 독특한 작품은 전시 때마다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원리인지요?

한글은 과학적이고 독창적이면서 매우 경제적인 문자입니다. ㄱ, ㄷ, ㅇ, ㅌ, ㅍ, ㅍ, 이 여섯 개의 자모음을 확장하거나 변형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모두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처음에는 고무자석으로 만들었다가 지금은 나무 블록으로도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놀면서 한글을 익힐 수 있도록 상품화 작업도 논의 중입니다. 무엇보다 실제 체험을 통해 한글의 우수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예요. ㄱ, ㅋ, ㆁ, 이 세 자모로 '슈'라는 캐릭터도 만들었어요. '슈'가 세계 곳곳을 다니며 다양한 글자들을 만나는 스토리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자나 로마자가 그림에서 출발하여 자연스럽게 진화해 온 3,000살쯤 된 장년기 글자라면,

한글은 아직 600년이 안 된 젊은 글자예요. 그만큼 변화무쌍하고,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죠.

서울여자대학교가 한글 디자인으로 유명한 것은 교수님의 이런 노력 덕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보다는 제 전임자였던, 마흔아홉 나이에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김진평 교수님의 공이 큼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한글 디자인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셨어요. 그 덕분에 서울여자대학교가 한글 디자인에 강점을 갖게 되었고, 후임자인 제가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원래 서울여자대학교는 한글과 인연이 깊습니다. 초대 총장인 고황경 박사님은 유난히 한글을 아끼던 분이셨어요. 호를 바름이라고 지은 것도 그렇고, 교가 가사는 또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 저는 지금도 가끔 제 차 안에서 교가를 불러요. 흥얼거려다보면 신기하게 힘이 솟아요. 50주년 기념전 때는 교가 가사를 작품으로 만들어 전시했어요. 지금 50주년기념관 로비에 걸려 있지요.

앞으로의 계획을 들려주세요.

신비하고 오묘한 한글의 매력을 더 찾아내고, 작업과 전시 등을 통해 더 널리 알려주세요.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 연구 & 교수 지원 프로그램

서울여자대학교는 교원의 연구력 강화를 위해 연구비를 지원하는 한편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교수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 교수의 연구활동을 위한 지원

1

#### 교수의 연구활동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서울여자대학교는 교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하고 내실 있는 연구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내외 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연구비를 비롯해 인력 지원과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도 지원한다. 학술연구의 경우 단독연구뿐 아니라 공동연구도 경우에 따라 인정해 지원금을 제공한다.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나 Science, Nature, Cell을 비롯한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 특별연구비를 지원한다. 특히 교외연구과제의 연구결과물로 산출된 연구논문을 국제저명학술지에 게재, 발표하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외부 연구수주사업을 독려하고 활성화한다. 또한 대형 연구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행정전담인력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였고, R&D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실시한다. 연구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과제 신청에서부터 성과관리, 연구자 네트워킹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학술활동 장려금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논문게재료, 저서출판장려금을 제공하며,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가해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경비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 미술대학 교원에게는 우수전시회 및 작품 출품을 장려하기 위해 개인전, 외부기획전, 초대전 등에 참여할 경우 출품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학제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자 사이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를 위한 기본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다학제간 연구회의의 활동을 지원한다.

2

#### 교수연구년제도

##### 실시

서울여자대학교는 전임 교원들이 일정기간 동안 연구에만 전념하여 연구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수연구년제'를 운영한다. 만 6년 이상 근속한 전임교원은 심의를 거쳐 1년씩 연구년을 가질 수 있으며, 연구년을 갖게 된 교원에게는 연구비가 지급된다. 연구기간이 끝나면 연구년 기간 중에 수행한 연구활동에 관한 보고서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012년 한해 동안 전체교원의 8.4%가 연구년을 가졌다.

### 교수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1

#### 교육지원제도 구축

서울여자대학교는 교원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교수학습센터를 기반으로 하여, 교수법 지원, 창의성 교육지원,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활용 교육지원 등의 교육지원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교수개발 프로그램으로 교수법 특강, 워크숍, 세미나 등을 열고 있다. 교수 멘토링을 실시해 멘토, 멘티 교수가 1:1로 서로의 교수법을 점검하며 효과적인 교수 방법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격려한다. 또한 신입교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입교수 연수회를 운영하며 신입교원이 수업현장에 빨리 적응하고 자기만의 교수법을 개발하도록 돕는다. 신입교원을 위한 연구비 항목을 따로 마련해 연구결과에 따라 연구비를 제공한다.

2

#### 교육방법개선 연구지원

##### 실시

서울여자대학교는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집중교수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는 교원들이 가르침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으로 교육집중교수가 된 교원은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수 기술을 연구한다. 이를 위해 교육방법개선연구비를 제공하고 있다.

796<sup>회</sup>

교수법 특강 및 워크숍(최근 3년 누적)

112<sup>회</sup>

교수멘토링(최근 3년 누적)

## 남다른 동문들

사회 각계각층에 많은 동문들이 포진해 있다. 자기만의 성공공식과 시나리오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 서울여대인들은 사회 곳곳에서 자기 몫을 훌륭히 소화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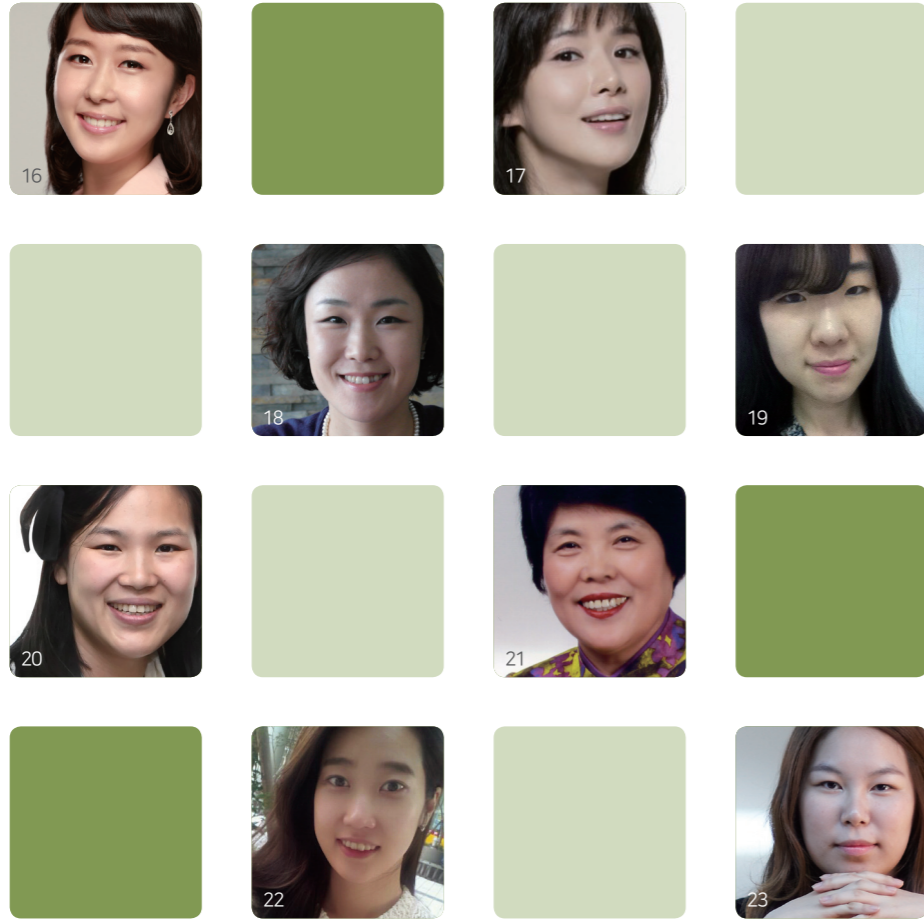


1 구은영 경영 00 / MBC문화방송 아나운서 2 김나영 식품공학 04 /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3 김성희 중어중문 02 / 딜로이트 안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4 김자원 정보보호 08 / 삼성SDS 5 노송이 컴퓨터공학 01 / LG전자 LSR/UX연구소 연구원 6 민다현 영어영문 02 / CJE&M 해외사업팀 7 박사론 불어불문 04 / 미스코리아, 방송인



8 박소연 산업미술 81 / (주)비헨즈 대표 9 박에스더 원예 70 / 아름다운동행 발행인 10 박혜령 농촌과학 78 / KBS 교양문화국 CP(책임프로듀서) 11 방상아 체육 85 / SBS 피겨스케이팅 해설위원 12 서승완 경영 90 / 데니체르바이 서승연 대표이사 13 안향자 산업미술 81 / (주)고감도 대표 14 연송이 정보보호 09 / 아시아나항공 캐빈크루 15 이명진 행정 01 / Oh&K법률사무소 변호사

남다른 동문들



16 이문정 아동 01 / MBC문화방송 기상캐스터 17 이보영 국어국문 97 / 배우 18 이지선 식품미생물공학 97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연구사 19 이지은 행정 01 / 국방부 사무관 20 임연주 의류 00 / ARTMAZE USA, COO 21 임태수 영어영문 70 / 대한어머니회 중앙연합회 회장 22 전민진 콘텐츠디자인 05 / LINE+ 라인기획실 23 전아름 콘텐츠디자인 07 / Sunny Side Up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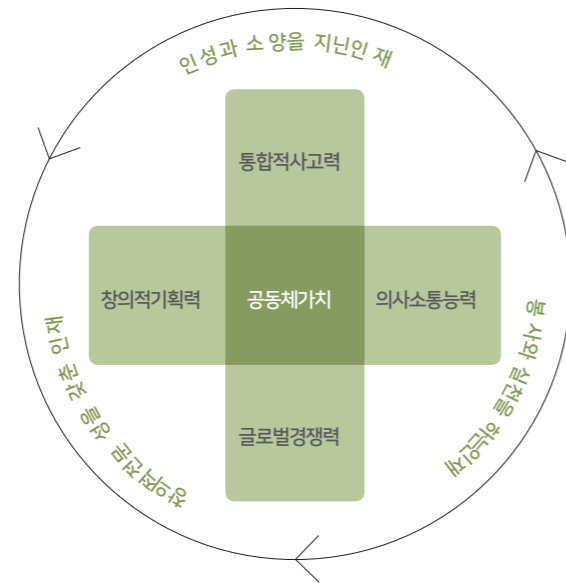
24 정빛나 언론홍보 06 / 연합뉴스 사회부 기자 25 조미옥 식품미생물공학 00 / 강남세브란스병원 내과 레지던트 26 조소연 교육심리 95 / 뉴욕시립대학교 인간복지학과 조교수 27 조혜선 가정 63 / 서울여자대학교 총동회장 28 최애라 경영 99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9 한지민 사회사업 02 / 배우 0 황가영 중어중문 06 / 변동중학교 중국어교사

# PLUS형 인재가 자란다

## 서울여자대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

### PLUS형 인재

서울여자대학교는 창의성과 실용적 지식으로 사회와 공동체의 변화를 이끄는 인재, 바른 인성과 소통 능력으로 사회와 공동체의 화합을 이끄는 인재, 봉사과 나눔의 실천으로 사회와 공동체의 미래를 이끄는 인재를 양성한다.



## PLUS형 인재의 핵심역량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자라는 PLUS형 인재는 5가지 핵심역량을 갖추게 된다.

- 공동체 가치    건전한 인성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자신과 주변을 성숙시킬 수 있는 능력
- 의사소통능력    자신의 의사를 적절히 표현하고 타인의 의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
- 통합적 사고력    다양한 현상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 글로벌 경쟁력    외국어를 활용하고 글로벌 현상의 이해와 국제적 감각을 갖출 수 있는 능력
- 창의적 기획력    유연한 사고와 독창적 아이디어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우)139-774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21 tel  
02-970-5114  
fax 02-978-7931